

하나님의 말씀

팔복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7958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는 삶의 은혜.....	4
4307 나는 너희가 축복되기 원한다.....	6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8
2465 "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지 못하는 일.....	8
5014 영적인 가난.....	9
5502 영적인 가난. 겸손. 은혜.....	9
0998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부유함. 세상적인 포기.....	10
5825 세상에 복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다.....	11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13
3472 고난의 축복.....	13
5995 육체의 장애... 혼의 고난.....	15
1402 죽은 사람을 위해 슬퍼하는 일.....	15
0470 주님 안에서 죽음... 슬픔... 불쌍한 혼과 기도.....	16
7247 나는 너희에게 위로자를 보낼 것이다.....	17
7378 영적인 위로.....	18
5827 위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의 말씀.....	19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21
1003 자신을 다스리라는 권면. 온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일.....	21
1910 온유함과 인내. 이웃사람들에게 주는 효과.....	22
2879 참을성과 겸손.....	22
3808 아버지 집의 거처. 영원한 고향.....	23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25
1869 정의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관하여.....	25
5432 공의롭게 생각하고 행하는 일. 원수를 향한 사랑.....	26
7326 공의.....	27
8786 너희가 판단하는 대로 너희가 판단받을 것이다.....	28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30
3460 공홀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30
1032 공홀. 질병과 연약함.....	30
4697 오류에 빠진 혼을 돕는 일은 가장 큰 공홀과 사랑의 역사이다.....	32
5943 공홀.....	32
6025 공홀히 여기는 일. 심장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33

6352 하나님의 긍휼.....	34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36
2046 순수한 심장을 가진 사람. 진리.....	36
5515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심장을 깨끗하게 하는 일.....	37
5296 하나님이 인간의 심장 안에 거하는 일.....	38
5617 아버지의 집과 축복.....	39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40
4706 이웃 사랑.....	40
0605 원수에 대한 사랑.....	41
0892 평화로운 세계. 민족의 지도자.....	42
8704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안.....	43
7943 하나님 안의 평화. 능력을 받는 일.....	44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46
5949 의로운 자에 대한 공격.....	46
5169 공개적인 고백. 생명력이 있는 믿음.....	47
4433 마지막 싸움. 세상 앞에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	48
6012 침묵의 기도. 세상 앞에 고백하는 일.....	49
7216 세상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사람은.....	50
8866 예수님을 인정하는 일. 마지막 믿음의 결정.....	51
4578 영의 나라의 축복.....	52
4890 사랑의 삶의 상급은 저 세상에서 축복된 삶.....	53
2233 하늘의 축복과 행복.....	54
8527 너희는 은혜로 축복을 받아야 한다.....	55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는 삶의 은혜.

B.D. No. 7958

1961년 8월 5일

모든 인간은 자신의 완성 직전에 서있는 타락한 원래의 영이다. 다시 말해 만약에 그가 인간으로써 성장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의 자유의지를 나에게 향하면, 그러므로 그가 한때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나를 다시 고백하면, 그는 나와 하나가 되기까지 단지 아직 짧은 길을 남겨 두고 있다.

모든 인간의 혼은 끝 없이 긴 성장 과정을 지나 왔다. 왜냐면 끝 없이 깊은 곳으로부터 빠져 나와 원래 초기에 거했던 높은 곳으로 올라서기 위해 이런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인간으

로써 상태에서는 다시 빛을 영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들이 나를 떠나 타락할 때 잃어버렸던 깨달음의 정도를 다시 얻을 수 있다.

왜냐면 혼은 자신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혼은 단지 약한 정도이지만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생각하고 말할 수 있고 스스로 이 정도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높일 수 있다. 혼이 인간으로써 삶을 산 후에 영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깨달음의 정도는 혼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왜냐면 깨달음의 정도는 빛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빛이 없이는 혼은 절대로 축복될 수 없다. 인간 스스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높은 빛의 정도를 얻을 수 있다. 그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동안 자신의 성품을 자신의 원래 상태이고 축복된 가운데 나와 연결되어 영의 나라에서 거할 수 있기 위해 꼭 도달해야만 하는 사랑으로 바꾸기 위해 활용하면, 높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사람이 스스로 완성해야만 하는 역사이다. 그러나 그는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왜냐면 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모든 방식으로 도움이 그에게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성품은 영의 나라에서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 첫 번째 사람이 새롭게 타락한 결과로써 육신을 입은 초기에는 아직 잘못 된 사랑 가운데 있다.

자기 사랑이 그를 지배한다. 자기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다. 또는 타락한 원래의 영이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자유의지로 스스로 완성해야 한다. 그래서 그가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드는데 도달하여야 하고 이제 나와 연합이 된 가운데 자유와 빛과 능력 가운데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게 되어 한다.

이런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이 땅의 삶의 목적이고 어떠한 존재도 이를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면 이는 동시에 존재가 의지의 시험에 합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온전하게 창조된 신적인 존재라는 증거이다. 그러나 신적인 존재로써 내 곁에 거할 수 있기 위해 나로부터 한때 피조물로 생성되어 나온 존재가 내 자녀로서 내 곁에 거할 수 있기 위해 이제 자유의지로 스스로 이런 온전함을 추구해야만 한다.

내가 창조한 존재들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일이 내 목표였고 내가 확실하게 도달할 내 목표이다. 그러나 여기에 걸리는 시간은 존재가 스스로 정한다. 존재가 이제 인간의 단계에 도달했으면, 그는 목표의 바로 직전에 놓여 있다. 사람은 이제 마지막 짧은 기간을 그의 마지막 완성을 위해 잘 활용해야 한다.

그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이 땅의 삶의 목적에 관한 모든 연관 관계와 내 뜻에 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왜냐면 내 뜻을 성취하는 일은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일은 그에게 진리에 합당한 지식을 준다.

이 지식은 그에게 전적인 깨달음을 주고 단지 목표를 추구하게 그를 인도하고 이 땅에서 자신의 완성에 이르게 하고 자신의 성품을 사랑으로 바꾸게 해서 항상 나와 연결을 이루게 한다. 그러면 이 연결이 끊어 질 수 없게 되고 이제 목표에 도달하는 일은 보장 된다.

그의 자신을 의식하는 상태를 사람들은 활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 해야 한다. 그러면 나는 항상 그의 곁에 함께할 것이다. 나는 그의 생각을 올바르게 인도할 것이다. 나 자신이 모든 방식으로 그를 도와서 그가 목표에 도달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이 땅의 시간을 활용하지 않고 지나가게 하고 이 전의 끝없는 성장 과정을 알게 되면, 그는 언젠가 쓰라리게 후회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으로 존재하는 그에게 과거의 기억이 주어질 수 없다. 왜냐면 자유의지 가운데 이 땅의 삶은 사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는 두려움 가운데 그러므로 어느 정도 강요 가운데 살 것이고 그의 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지의 결정으로 여길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인간으로써 이 땅의 삶을 사는 일이 축복되기 위해 단지 올바르게 활용하기만 하면 되는 은혜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아멘

나는 너희가 축복되기 원한다.

B.D. No. 4307

1948년 5월 20일

나는 너희가 축복되기 원하고, 나의 목표는 세상 축복이 아니다. 왜냐면 이 땅의 삶은 영원에 비할 때 단지 짧고, 너희에게 영원히 축복된 삶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영원한 생명이 너희가 이 땅에서 증명한 것에 대한 상급이 돼야 하고, 다른 어떠한 것도 이 땅에서 너희에게 갈망할 만한 것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너희의 관점은 죽음 후의 삶을 향해야 한다. 너희가 가벼운 심장으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면, 너희는 영원을 위해 성숙해진 것이다. 너희는 세상적인 것 들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어야만 하고, 강요가 아니라 자유의지로 이 땅에서 너희에게 사랑스러운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만 한다. 너희는 모든 심장으로, 모든 혼으로 영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세상이 너희에게 줄 수 없는 재물을, 유일하게 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너희에게 제공해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너희를 축복되게 해주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제공하는 것을 추구해야만 한다.

영적인 재물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재물을 경시하는 법을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이 땅의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너희가 필요한 것을, 세상의 재물을 내가 너희에게 공급함을 확신하라. 그러면 너희 자신을 전적으로 나에게 드리라. 나는 모든 방식으로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굶주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축복되기 위해, 먼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너희 혼을 위한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

너희 사람들은 세상의 필요를 최우선에 두고,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영적인 공급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너희 스스로가 영적 공급을 받기 위해 추구해야만 한다. 왜냐면 내가 의지의 자유때문에 너희에게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 음식과 세상 음료는 너희 육체를 항상 단지 짧은 기간 동안만 유지시키고, 만약에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불러들이면, 절대로 이 땅의 삶을 연장시킬 수 없다. 반면에 영적인 양식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다. 너희가 한번 받은 영적 양식은 절대로 사라

지거나 또는 효과가 없게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 양식을 영원까지 가지고 가서, 그 위에 너희의 삶을 세워 나간다.

축복되게 영원히 살기 위해 너희는 행복하게 하는 일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본이 필요하다. 너희는 너희가 베풀수록, 줄어들지 않고 항상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영적인 부를 필요로 한다. 나는 이런 영적인 부를, 너희가 영원히 축복되도록 하기 위해 너희에게 주기 원한다. 그러나 나의 재물이 확산될 수 있도록, 너희 심장이 단지 전적으로 비어있다면, 너희는 나의 재물을 받을 수 있다. 왜냐면 영적인 재물은 세상적인 재물을 견딜 수 없고, 심장 안에서 둘이서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어떤 재물을 위해 너희 심장에 자리를 마련하기 원할지는 너희의 자유에 달려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가 축복되게 해주기 원하면, 나는 지혜로운 아버지로서 나의 자녀에게 조언해주고, 진정한 재물을 물리치고, 받을 수 없게 하는, 심장의 방을 합당하지 못한 재물을 청소하는 일을 도와야만 한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이 너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너희 심장이 아직 갈망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너희에게 방해가 되는 것으로부터 너희가 자유롭게 되도록 돕기 원한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실패를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너희를 세상과 세상의 헛된 재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내가 도와주는 수단으로 여겨라. 이러한 일을 단지 너희를 자유롭게, 영원히 염려나 두려움이 없이 항상 행복하게 살게 되는, 다시 말해 쉬지 않고 사랑의 역사를 행하는, 넘치게 축복된 존재로 만들려는, 너희의 최종목표를 위한 나의 돌봄으로 깨달아야 한다. 나는 너희가 축복되기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영적 양식을 제공하기 원한다. 왜냐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 너희가 이 양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지 못하는 일.

B.D. No. 2465
1942년 9월 4일

인간이 얼마나 왜소한가! 인간이 얼마나 자신을 지혜롭고, 권세가 있게 여기는가! 인간은 하나님의 선물을 버릴 수 있다고 믿고, 자신의 지혜를 관철시키기를 원한다. 그는 그의 생각하는 이성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이성을 하나님을 깨닫는 일을 위해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성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근원이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한다. 그는 자신 위에 어떠한 것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인정한다면, 그는 자신의 지혜를 자신이 평가하는 것보다 더 적게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식을 훨씬 능가하는 지식이 그에게 제공되면, 그는 자신을 고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조롱한다. 그가 조롱하는 이유는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러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이런 지식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지식이 증가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고, 알지 못한다고 여기고, 자신의 지혜를 증가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피조물들의 영적인 가난함을 알고,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신 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준다. 영적으로 가난하게 느끼는 사람은, 자신을 거만한 영이 되게 하는 세상 지식을 자신의 소유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열어준 샘에서 기르기 원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모든 사람에게 이 원천의 샘은 열려 있다. 인류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원천의 샘을 지나친다.

그러나 이러한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는 가장 귀한 것이다. 이 생명수는 모든 세상의 재물을 훨씬 능가하는 보물을 사람들에게 전해준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사람들이 한번 받으면, 절대로 다시 잃기를 원하지 않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말할 수 없게 행복하게 하고, 높은 곳을 향해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반면에 세상 지식은 무의미하고 되고, 가치가 없다. 다시 말해 세상 지식은 단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유익이 되고, 단지 세상적인 유익을 준다. 그러나 영적인 지식은 이 땅의 삶을 위해 작은 성공을 준다. 그러나 사람이 한번 이 지식을 찾았다면, 그는 더 이상 이 지식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영적인 지식을 거부하는 일은 단지 그의 세상적인 자세를 증거하고, 그의 진리를 향한 적은 소원을 증거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가 영적인 지식을 귀한 선물로 깨달아야만 하고, 동시에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게 되어야만 한다.

아멘

1950년 12월 4일

영으로 진리로 나에게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의 심장 안은 진정한 어린 아이와 같은 경건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만 한다. 그가 단지 어린 아이와 같은 경건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자신을 작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간격을 알지라도, 그가 구하면서 나에게 다가 가면, 내가 그를 영접한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깊게 겸손한 사람이다. 그는 그를 넘어지게 하지 않는 내 사랑을 믿는 믿음 단지 가지고 있고, 이런 영적인 가난함이 그를 겸손하게 만든다. 그러나 나는 겸손한 사람에게 나의 은혜를 선물하고, 그는 이런 은혜를 통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가난은 단지 자신이 합당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는 일이고, 나의 은혜와 긍휼을 갈망하는 일이다. 이런 겸손으로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할 것이다. 자신을 영적으로 가난하게 느끼고, 자신의 부족한 상태를 의식하는 모든 사람은 도움을 원하고, 그들이 사랑과 은혜를 희망하는 곳에서 도움을 구할 것이다. 그들이 영적인 가난 가운데 자신을 나에게 의탁하고 자신을 깨닫고 나에게 기도하면, 나는 그들을 축복한다. 왜냐면 이런 기도는 항상 겸손한 기도가 될 것이고, 항상 내 응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1952년 10월 8일

영적으로 가난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나를 그에게로 이끈다. 왜냐면 그들은 겸손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을 연약하고 무가치하다고 여기고, 나에게 긍휼을 구하고, 그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내 은혜를 받는다. 나는 모든 연약한 사람이 나를 부르면, 그들에게 다가 간다. 왜냐면 나에게서 어느 누구도 아주 적거나 아주 가치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긍휼히 여기는 내 사랑이 연약하고 무기력한 사람을 보호하고, 강하게 한다. 나는 그를 나에게 이끌고, 그를 더 이상 놓지 않는다. 그러나 누가 영이 가난하고, 누가 내 눈 앞에 내 은혜를 입을 정도로 겸손하느냐? 나에게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깨달은 사람이고, 영적으로 내 앞에서 자신의 무릎을 꿇는 사람이고, 은혜의 영접을 받기 위해 자신을 전적으로 모두 나에게 순복시키는 사람이고, 항상 단지 내 사랑을 받기 원하지만, 그러나 내 사랑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자신을 느끼는 사람이다.

이 땅의 자녀의 겸손은 나를 강하게 끌어 들인다. 왜냐면 나를 향한 겸손 안에 나를 향한 사랑과 부름을 받지 않고는 나에게 다가 오려고 감히 시도하지 않는 사랑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혼은 그의 겸손을 통해 의식하지 못한 채 나를 부르고, 그런 혼에게서 내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부드러운 빛이 발산된다. 왜냐면 이미 어떤 신적인 것이 나에게 비추고, 영적인 가난함이 혼이 나를 깨달았다는 증거이고, 이런 깨달음이 나에게 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자신을 가난하게 느끼는 사람은 영원한 내 사랑을 얻은 것이고, 내 은혜가 거침없이 흘러갈 것이다. 왜냐면 내가 겸손한 사람에게 내 은혜를 베풀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의 심장을 정확히 알고, 겉 모습으로 나를 속이게 하지 않는다. 나는 혼이 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알고, 말하지 안했지만 그러나 생각하고 있는, 내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어떤 것도 나에게 숨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러나 또한 제한할 수 있다. 나는 무릎을 꿇은 자녀를 끌어 올릴 수 있고, 세상 앞에서 겸손한 척하지만 결코 진정한 겸손을 보여주지 않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를 떨어 트릴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측량할 수 없게 은혜가 주어지고, 다른 사람은 부족하게 받는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고, 모두가 자신들의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기 원하고, 그들 모두가 나와 의 간격을 느끼기 원하고, 깊은 심장에서부터 간청하며, 그들의 손을 나에게 펼치기 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은혜로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고, 내 은혜를 가진 사람은 곧 나 자신을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자녀처럼 아버지에게 다가와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나와 의 올바른 자녀의 관계를 가진 사람을 내가 절대로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을 크고 높게 느끼고, 자신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은 추락할 것이다. 자신을 연약하고, 죄인으로 깨닫기 때문에 자신이 저조한 것으로 믿는 사람은 내 사랑으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항상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는 내 손에서 넘치는 분량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높은 곳으로 확실하게 나가게 될 것이다.

아멘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부유함. 세상적인 포기.

B.D. No. 0998

1939년 7월 7일

사람의 생각이 영원히 쇠하지 않는 것으로 향해 있으면, 이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다. 현대의 모든 영은 단지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향한 갈망이 거의 더 이상 능가할 수 없게 됐다. 그는 자신을 관찰해보는 상태에 거의 빠져 들지 않는다. 사람은 그의 성품이 표면적이고, 모든 정욕과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자신의 텅 빈 내면의 생명을, 자신의 아주 위험한 혼의 상태를 항상 명백하게 인식해야 만한다. 그는 집중해서 이런 고난이 가득한 혼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려는 노력을 해야 만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의 나라를 영접한 사람들 만이 단지 아는 사람들의 무리에 속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로써 영원한 샘에서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영적인 지식은 측량할 수 없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고, 혼이 높은 곳으로 성장하도록 큰 지원한다. 이로써 혼은 이 땅의 삶의 무익함을 깨닫는다. 이 땅의 삶에서 육체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혼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러나 혼이 쇠하지 않는 것에 대한, 영원한 생명과 이 생명의 영광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면, 혼은 이 땅의 즐거움이 줄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세상 모든 권세가 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약속해준 것을 나누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이 세상 자신으로부터 주님이 주지 않은 것이나 또는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뜻이 아닌 어떤 것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주님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내면의 행

복을, 영적인 선물을, 세상적인 재물을 넘치게 부어 주어, 사람들이 영적인 부유함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이웃 사람들 사랑하는 가운데 머물게 한다.

그러나 세상은 얼마나 빈약하게 베풀어주는가!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가서, 얼마나 거의 없다시피 하는 적은 성공을 하는가! 영적인 재물 없음이 이 땅의 삶의 무익함을 얼마나 나타내 줄 것인가! 이 온전하지 못한 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후회를 느낄 것인가! 그러나 하늘은 모든 세상의 즐거움을 부인하고, 스스로 영원을 향한 이 땅의 자녀들을 위해 열려 있을 것이다.

이 땅의 삶은 단지 짧다. 그가 이 땅의 삶에서 이런 재물을 모으고, 나중의 삶을 준비했으면, 사람이 이 땅의 삶에서 갖지 못한 것이 저 세상의 삶에서 넘치게 주어질 것이고, 측량할 수 없는 재물을 저 세상에서 다시 찾을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에게 그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질문하고, 이 영은 그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 영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면, 그에게 답변해줄 수 없다. 왜냐하면 답변을 얻기 위해 세상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고, 단지 영적인 성장만을 구하는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가 희생한 것은 천 배의 보상을 받는다. 왜냐하면 세상의 행복은 거품과 같기 때문이다. 세상의 행복은 사라지고, 영원을 위해 가치가 있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인 추구는 영적인 재물을 모으고, 사람들이 항상 영적인 지식에 깊이 들어가기 위한 열심을 내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 땅의 자녀가 이 땅의 삶을 떠나면, 그는 궁핍해질 필요가 없게 넘치게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과 자신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의 부유함을 나눠 주기 때문이다.

아멘

세상에 복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다.

B.D. No. 5825

1953년 12월 13일

세상에 조공을 바치는 일은 하늘 나라를 포기하는 일과 같다. 왜냐하면 사람이 두 나라를 동시에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 복종하는 사람은 또한 하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단지 자극적인 세상의 나라가 있고, 그들은 이 나라의 밖의 나라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늘 나라를 향하는 길은 이 땅의 세상을 통해 가야만 하고, 이 세상을 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속한 나라인 이 땅을 통과하는 자신의 마지막 성장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그러나 그는 이 나라를 극복할 수 있고, 그는 세상으로부터 특별하게 인상을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감각으로 세상을 갈망하지 않으면서 이 땅의 세상을 통과하여 갈 수 있다. 그는 세상에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세상을 극복하는 일이 너희의 과제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바로 너희의 혼이 성장하게 하는 목적과 혼이 자유의지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하는 목적으로 너희에게 주어졌고,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은 동시에 이 세상의 지배자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이고, 자신을 영의 나라에게 드리는 일이고, 자신의 주님에게 드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자신을 세상의 노예가 되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 후에도 절대로 영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게 되는 일은 이해할 만한 일이고, 사람이 스스로 세상의 지배자에게 권리를 주기 때문에, 세상의 지배자가 그를 가두고 있는 일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왜냐면 사람이 스스로 세상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을 추구하고 완성해야만 하고, 물질적인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을 추구하고 완성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항하여 싸워야만 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포기해야만 한다.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이 포기하는 것을 천 배로 보상해주는 모든 영광을 가진 영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기 위해, 단지 짧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모든 유혹에 저항해야만 한다. 만약에 그가 단지 이 땅에서 그에게 갈망할 만하게 보이는 것이 가치가 없음과 지속성이 없음을 깨닫는다면, 그는 이렇게 행할 것이다. 단지 이런 깨달음이 자신의 의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만드는 능력을 그에게 줄 것이다. 만약 그가 단지 물질의 세계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그는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왜냐면 그의 의지가 변화되도록 강요받아서 안 되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체험을 통해 내적인 관찰을 하도록 자극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성공을 할지는 그 자신이 정하고, 하나님은 헛된 것을 항상 또 다시 증명해주는 정도로 그를 도울 수 있고, 사람이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이 붕괴되게 하는 정도로, 그가 사람의 내면에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정도로 그를 도울 수 있고, 항상 단지 그에게 그가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지 알려 주기 위해 그의 심장이 연연해하는 것을 그에게서 빼앗는 정도로 그를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체험을 통해 배우는 사람은 자신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다. 왜냐면 그는 그의 의지의 방향을 서서히 바꾸고, 한때 영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세상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타협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되고, 어느 누구도 벌을 받지 않으면서 세상에 굴복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모든 추구는 자신의 죽음 이 후에 역사가 나타난다. 세상을 추구했다면, 그에게 영적인 죽음이 임하고 그러면 그는 세상의 유익을 위해 영의 나라를 포기한 것이고, 세상이 그에게 죽음을 준 것이다. 그러면 그는 새롭게 깊은 곳에 있는 권세에게 넘겨지고, 높은 곳을 향한 길을 가는데 다시 끝없이 긴 기간이 필요하게 된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고난의 축복.

B.D. No. 3472

1945년 4월 28일

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은 가장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운 아버지를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가 더 이상 혼이 공격받는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혼이 더 이상 고통 속에 있지 않게 되면, 비록 그 물질이 아직 고통을 통해 영화 될 수 있고, 이는 인간의 걸 형체 안에 아직 묶임을 받고 있는 영적인 존재에게 더 빠른 성장을 의미할지라도, 몸이 더 이상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너희 사람들은 내가 너희를 나에게 인도하는 길을, 너희의 최종적인 자유를 목표로 하는 길을 얼마나 단축시키고 싶어 하는지 모른다.

너희는 인간으로 육신을 입기 전에 말할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이 땅의 과정을 가야만 했다. 성장의 마지막 단계는 단지 짧고, 너희의 의지가 올바른 방향을 향하게 한다면, 너희는 완전하게 자유롭게 될 수 있다. 나는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돕기 원하고, 너희가 너희의 시선을 나에게 돌리고, 너희의 삶의 끝까지 나와 함께 길을 갈 수 있도록 너희를 돕기 원한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자주 시선을 옆으로 돌리고 세상의 매력에 유혹을 받는다. 너희의 의지는 아직 너희가 갈망하는 이 땅의 재물을 추구하고, 너희는 나의 대적자의 영역에 빠질 위험에 처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주 너희에게 자극해줘야만 한다. 이로써 너희가 깨어나 다시 길에 주의를 기울이고, 나를 잊지 않고, 곤경에 처했을 때 나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의지가 다시 나를 향하게 한다.

그러나 너희가 길을 벗어나지 않는 동안에는, 너희가 나를 바라 보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추구하는 동안에는 나는 느낄 수 있게 너희 가까이에서 있고, 모든 발걸음을 지키고, 손을 잡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가 길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벗어나도록 인도한다. 이런 어려움들은 너희가 극복해야만 하는 어려움들이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너희의 성장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일도 너희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일도 너희를 절망하게 해서는 안 되고,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향한 너희의 의지를 통해 나를 동반자로 삼는 동안에는 너희는 절대로 힘이 없게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를 강하게 하고, 비록 너희가 이 길을 많은 수고를 드려 갈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또한 이를 통해 너희의 몸과 혼을 위해 가장 큰 유익을 얻는다. 왜냐하면 몸과 혼이 점점 더욱 더 영화되고, 너희의 마지막은 축복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언젠가 뒤돌아 보면서 참아야만 했던 고통의 축복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진실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한다. 그러나 너희가 성숙하지 못한 영인 동안에는, 너희가 전적으로 정화가 되어, 불순물이 없이 내 앞에 설 수 있게 되지 못한 동안에는,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행복을 줄 수 없다. 단지 나의 임재가 너희에게 축복이고, 이런 임재는 순수함과 성실함을 전제로 한다. 나는 너희가 아직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너희가 그렇게 되도록 돕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나의 사랑은 너희의 고난을 줄

여 주기를 원한다. 이로써 너희가 저세상에서 무기력하기 때문에 두배로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한다.

너희가 이 땅에서 고통을 겪어야만 할 때 나는 이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나의 사랑은 너희로부터 이 고통을 거두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러면 단지 너희에게 불리하게 된다. 왜냐면 너희가 절대로 영원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힘있게 자유롭게 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너희의 운명은 영원히 무기력하고 죄 가운데 사슬에 묶인 포로가 될 것이고, 영원히 나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나의 연민보다 더 크다. 왜냐면 나의 지혜가 고난을 너희를 되찾는 유일한 수단으로 깨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묶임으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 땅의 힘든 학교를 가야만 하고, 너희에게 실제 어렵고 참을 수 없게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의 증거인 운명을 짧은 기간 동안 짊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고통을 줄이는 일은 너희 자신에게 달려 있다. 너희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 너희가 사랑의 삶을 살면, 너희 자신이 고난을 견딜만 하게 만들 수 있다. 왜냐면 사랑은 힘이고, 나 자신이 사랑이고, 너희가 사랑을 행하면, 너희에게 힘이 흘러가 충만하게 되고, 너희는 고통이 너희를 바닥으로 짓누를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이제 나와 함께 고난을 극복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사랑의 역사를 통해 내 자녀가 된다면, 진실로 너희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놔두지 않을 것이다. 사랑 안에 머물라. 너희는 또한 나와 연결되어 머물라. 이웃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고, 너희의 고통을 뒤로하라.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고난을 줄일 것이고, 고난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삶은 항상 더 견딜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사랑으로 정화되고, 너희 혼의 성장을 위해 고난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고난을 나의 사랑의 증거로 깨닫는 법을 배웠다면, 너희가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고난을 통해 너희의 의지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수단으로 보게 되었다면, 고난이 더 이상 그렇게 너희에게 고통스럽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하면 고난을 견디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운명에 반항하지 않을 것이다. 이 운명이 너희에게 힘들어 보이지만, 이로써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운명은 이 땅에서 이미 너희를 빛의 존재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사랑을 통해 고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라. 그러므로 종말의 때까지 시간을 활용하라.

너희가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라. 너희의 심장을 형성하여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하고, 이로써 너희가 힘이 충만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게 하라. 왜냐면 나의 사랑이 역사할 수 있는 곳에는 연약함도, 절망도, 무기력도 염려도 없고, 내가 역사할 수 있는 곳에 혼의 평화와 희망과 강함이, 끊임 없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손을 잡고 인도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악의 권세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은 나의 보호를 느끼고, 전적인 믿음으로 나에게 자신을 바치고 내가 통치하게 한다. 나는 아버지 방식으로 나의 자녀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들이 모든 영원에 영원토록 나의 임재 아래 말할 수 없게 축복된 가운데 머무는 영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을 돌본다.

아멘

1954년 7월 7일

육체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혼이 이 땅의 삶을 올바르게 활용했다면, 혼은 빛나는 빛이 충만한 가운데 영원에 들어가기 위해 육체를 떠난다. 그러므로 육체에 장애가 있다면, 이로 인해 슬퍼하지 말라. 왜냐면 육체는 혼을 위해 짐을 져, 혼이 자유 가운데 빛나는 높은 것으로 날라 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왜냐면 이는 이 땅의 삶의 마지막에 가서 너희 혼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고, 이 길은 너희가 한때 자유 의지로 가기로 결정한 길이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알지 못할지라도, 혼은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깨닫고, 너희가 짊어지기에 힘들게 생각하는 이 운명을 받아 짊어진다.

그러나 너희의 육체가 더 이상 짐을 견딜 수 없게 되면, 너희는 너희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지기에 너무 연약하게 느낀다. 그러면 그를 바라보고, 그가 너희의 짐을 그 자신의 어깨에 지워주기를, 그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도와주기를 구하라. 그는 너희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너희를 지원할 것이다. 너희가 그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해 도움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의 사랑이 너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이해할 수 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육체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육체는 사라진다. 그러나 혼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피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이런 혼들에게 임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육체가 견뎌야만 하는 고난보다 훨씬 큰 고통을 혼들이 피하게 해주기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 너희가 인내하며 십자가를 지면, 혼의 겉 형체는 사라지고, 혼은 빛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혼은 자유롭게 되고, 이제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혼은 죽음을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으로써 환영할 것이다. 혼은 기쁨으로 육체를 벗고, 육체가 혼을 위해 고통 당한 것에 감사할 것이다. 왜냐면 혼은 이제 빛과 자유와 영원한 축복 가운데 살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죽은 사람을 위해 슬퍼하는 일.

B.D. No. 1402

1940년 4월 30일

너희는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염려하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른 사람들로 인해 울지 말라. 다시 말해 너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위로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고생하게 너희에게 염려와 환란을 보내지 않고, 고난을 통해 너희 혼이 성장해야 할 너희 혼을 위해 보낸다. 너희가 너희에게 사랑스럽고, 귀한 한 사람을 잃는다면, 십자가의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너희가 생각할 때, 너희의 고통은 줄어들 것이다. 너희는 고난을 너희 어깨에 짊어지면, 너희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지는 것이다.

주님은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 졌다. 그러나 너희가 고난에 복종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고난을 견디면, 너희는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므

로 원망하지 말고, 혼이 이 땅의 골짜기를 떠났다면, 혼을 이 땅으로 불러들이지 말라. 왜냐하면 혼에게 자유의 시간이 임했고, 모든 이 땅의 어려움이 혼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것이, 주님이 혼을 자신의 나라로 불러들일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삶을 마치게 했다는 것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어야 한다. 이 땅의 삶은 쉽지 않았고, 혼은 이제 이 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너희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혼은 이 땅의 삶을 평안이 충만한 영원한 삶과 바꾸었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죽음... 슬픔... 불쌍한 혼과 기도...

B.D. No. 0470

1938년 6월 17일

주님 안에서 잠이 들고 빛이 충만한 저 세상에서 깨어나게 되는 죽음은 복된 죽음이다. 삶 가운데 너희에게 주어진 것을 너희가 영원을 바라보면서 받아들이면, 삶을 아주 쉽게 견딜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는 동시에 단지 영원을 위해 살고, 또한 너희가 고난의 시간을 영원과 비교하면 모든 고난이 짧은 시간 내에 끝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고통의 열매를 영원한 기간 동안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죽음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러나 더 축복 되다는 것이 항상 너희에게 위로를 주기에 충분해야 한다. 너희의 죽은 자를 묻는다면, 너희는 그로 인해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너희가 혼이 이 땅의 삶을 더 아름다운 삶과 바꾸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이 자신으로부터 모든 고난을 떨쳐버리고 이제 어려움이 없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모든 세상적인 것 보다 아름답고 행복이 더욱 빛나는 것을 생각하면, 이 날이 너희에게는 내적인 기쁨의 날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너희가 슬퍼하겠느냐?

그러므로 이미 이 땅에서 저 세상의 그런 운명에 도달하려고 하라. 너희가 세상에 묶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하라. 너희는 쉽게 이 땅을 떠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을 아주 깊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땅을 떠나는 일이 아주 어렵게 될 것이다. 그는 세상의 재물과 이별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심장은 세상의 물질에 아주 연연해한다.

이런 사람들은 저 세상에서 그들에게 이 땅의 안락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준비된 장소를 찾지 못한다. 그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이런 처소를 위해 일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이 저 세상의 행복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섬겨야만 한다. 혼이 이 땅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혼이 저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얻었어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이제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해 사람이 이런 혼을 위해 슬퍼할 권리가 있다.

이런 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아주 필요한 너희의 능력을 주는 것이다. 이런 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사랑으로 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혼이 삶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해 그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까지 이제 굶주려야만 하는 혼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이다.

너희를 향한 주님의 돌봄은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너희의 도움에 대해 심장으로 너희에게 감사하게 될 그들에게 너희의 도움이 임하게 하라. 오류에 빠졌었고 결국에 빛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한 올바른 길로 인도받기 위해 애써야만 하고 싸워야만 하는 그들을 생각하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너희는 이 땅의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너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도록 항상 단지 주님을 구하라.

아멘

나는 너희에게 위로자를 보낼 것이다.

B.D. No. 7247

1959년 4월 6일

스퍼하고 염려하며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너희 모두는 위로를 받아야 한다. 내 사랑이 항상 너희를 뒤따를 것이다. 내 사랑은 너희가 고난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올바른 위로자인 내 영을 너희에게 사랑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주는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기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내가 육체적으로 더 이상 이 땅에서 거하지 않게 되면, 내 영이 너희를 위로해줄 것을 약속했다.

이 약속은 이 땅의 과정을 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 된다. 나 자신이 영으로 항상 그들과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 원하고 그들이 외롭거나 버림받은 것으로 느끼지 않게 하고 그들이 슬퍼할 필요가 없게 하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게 한다. 왜냐면 나 자신이 나에게 위로와 능력과 사랑을 구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내 영은 진실로 위로자이다. 어느 사람이 실제로 너희에게 영원한 사랑 자신이 하는 것보다 더 사랑스럽게 말할 수 있느냐? "나는 너희에게 진리의 영인 위로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내가 약속한대로 영원한 사랑은 영을 통해 자신을 나타낸다. 내 비추임인 이 영은 진실로 너희를 올바르게 세우고 위로 해줄 것이다. 그는 너희가 무능력하게 머물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영은 너희를 강하게 하고 항상 또 다시 용기와 능력을 줄 것이다. 너희는 항상 이 땅의 삶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영의 불씨가 영원한 아버지의 영의 위로를 받기 위해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연결을 이루면, 너희가 나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심장이 슬프다면, 사람들이 세상적인 위험이나 또는 영적인 위험 속에서 절망하면, 내 영이 너희 안에서 일할 수 있게 내 영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진실로 너희가 능력을 얻고 위로받는 가운데 올바른 목표를 향한 너희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나 자신에게 다가오는 단지 한 길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나 자신이 너희에게 말하고 내 말은 너희 심장을 쾌활하게 하는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내 말은 모든 고통을 줄여주고 모든 비밀스러운 위험을 해결한다. 내 말은 너희 심장에 들어갈 것이고 고통 속에 그가 필요한 위로를 해줄 것이다. 내가 제멋대로 "나는 너희에게 위로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예수를 따르는 길을 가기 원하면, 그들이 빠지게 될 많은 위험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예수를 따르는 길 가운데 고난이 없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내 위로를 보장해주기 원했다. 내가 순수하게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속한 그러나 위로와 능력이 필요하고 그의 위험 가운데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지만 단지 인간으로써 볼 수 없는 나 자신이고 내 영인 위로자를 약속해주었다.

그러나 내 영을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 안의 영의 불씨와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에게 위로하는 역사를 할 수 없다. 위험에 빠진 내 도움을 기대하는 사람의 부름이 내 귀에 도달할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만 한다. 부름을 받으면, 실제 나는 도와줄 준비되어 있다. 나를 믿고 도움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내 위로자를 약속했다.

그러므로 무엇이 사람을 짓누르던지 간에 어떤 사람도 절망할 필요 없다. 왜냐면 그는 항상 나에게서 도움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주 분명하게 이런 도움을 그에게 보장해주어 내 영이 드러나게 할 것이고 "나는 너희에게 진리의 영인 위로자를 보낼 것이다."라는 내 약속의 말씀대로 내 영의 역사가 드러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절망을 하거나 놀림을 받으면, 너희는 내 이런 약속을 의지할 수 있다. 내 말은 진리이기 때문이고 자신의 위험 가운데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어느 누구도 내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아멘

영적인 위로.

B.D. No. 7378

1959년 6월 30일

모든 영적인 위로에 자신을 여는 혼이 이 위로를 통해 사랑을 느끼면, 이 위로는 혼에게 생기있게 하는 위로이다. 혼이 영적인 위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으면, 혼은 항상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은 단지 육체에게만 유익이 되는 세상 재물을 주는 것보다 더 높게 평가를 받는 사랑의 역사를 이웃에게 행한다.

그러나 영적인 위료가 필요한 혼에게 사랑의 역사가 필요하다. 항상 진정한 사랑이 혼에게 위로해주면, 혼을 훨씬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다. 왜냐면 그러면 혼은 이런 사랑을 느끼고 자신이 사랑을 향하게 자극받고 사랑은 항상 구속하는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인 위로를 해주기 위해 항상 올바른 관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나와 자신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항상 이웃에게 나를 알려줄 수 있다. 그는 이웃에게 어디에서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말해줄 것이다. 그는 이웃에게 그들 자신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게 그가 가지고 있는 같은 관계를 나와 이루게 용기를 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말은 그에게 영적인 위로를 구하는 이웃에게 생명력이 있고 이웃에게 역사할 것이다. 그를 위로해줄 것은 바로 이런 연결이고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부름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 분이 있다는 희망이고 그가 모든 육체와 혼의 위험 가운데 나와 연결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다.

어느 누구도 이웃에게 위로해주지 않고 홀로 가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항상 단지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모든 고난을 바꿔줄 수 있고 바꿔주기 원하는 나를 알려주는 일을 통해줄 수 있다. 왜냐면 그는 나를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로 깨닫기 때문이다.

존재가 원래 초기에 나와 가졌던 관계를 다시 맺는 일만이 축복되기 위해 그가 한때 추구했던 분리를 스스로 자유의지로 없애고 나와 다시 하나가 되는 일만이 유일한 이 땅의 삶의 목적과 목표이다. 그러므로 나를 알려주는 모든 일은 모든 사람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에 동시에 외롭고 버림받은 상태로 대적자의 모든 공격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필요한 영적인 위로이다.

그에게 영적인 위로는 필요하다면, 그는 영적인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모든 사람이 아직 이 땅에 거하든 또는 이미 저세상에서 거하든 그들을 도우라. 너희가 그들에게 나를 부르게 내 이름을 부름을 통해 그들의 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게 나를 알려주면서 그들에게 이런 위로를 주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생각하라. 그들을 이런 위험 가운데 놔두지 말라. 너희가 그들이 나를 찾게 도우면, 내 안의 축복에 도달하기 위해 나와 연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내 안의 축복에 도달하게 도우면, 그들은 너희에게 너희의 도움에 대해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같은 혼의 위험에 처하면, 너희도 위로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특별하게 돕고 축복되기 위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것이다.

아멘

위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의 말씀.

B.D. No. 5827

1953년 12월 15일

스프고 탄식하며 세상적인 어려운 가운데 절망스러운 생각 가운데 있는 너희 모두는 내 말을 통해 위로를 받아야만 한다. 너희는 내가 높은 곳으로부터 나의 피조물들의 상태를 깨닫고, 그들이 심장 안에 나를 모시지 않으면, 그들이 가진 연약함과 외로움을 깨닫는 가운데 전해준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어야 한다. 나는 모두를 위로해 주기를 원한다. 나는 모두에게 그들이 단지 하늘의 아버지를 부르면,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신뢰를 다시 갖게 해주기를 원한다.

나는 높은 곳에서 너희에게 말한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에게 전해진 내 말씀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내가 이 땅의 나의 자녀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모든 위험과 고난을 알고,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실체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를 너희에게 새롭게 보장해주고, 내가 너희를 도우려면, 내가 너희들로부터 부탁을 받기 원하는 조건을 너희에게 알려 주기 원하고, 이런 조건을 제시해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내 도움이 너희 혼을 위한 어떤 축복도 너희에게 줄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의 요청을 받지 않고, 너희들을 도우면, 너희는 절대로 이 땅의 삶의 목적과 목표인 나와 연결을 이루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나 자신이 너희가 너희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기여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나를 항상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하고, 나는 나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 나는 이 연결을 절대로 끊지 않을 것이고, 단지 너희가 스스로 이 연결을 이루기 원한다. 나는 너희가 나를 너희 아버지로 깨닫고, 단지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모든 세상적인, 영적인 위험 가운데 나에게 의뢰하기 원한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믿는

모든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내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 너희 안에 믿음이 새롭게 깨어나게 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고, 비록 나에게 순종하는 일꾼의 입술을 통해 말할지라도, 모든 각각의 사람들에게 직접 말한다. 그러나 일꾼들은 단지 나 자신이 너희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말을 하고, 그들은 단지 내 도구로써 말하고, 나를 위해, 나 대신해서 말한다. 그러나 너희가 듣는 말씀은 내 말씀이고, 내 말씀은 모든 능력으로 너희에게 감동을 줘야 하고, 너희가 모든 육체와 혼의 위험 가운데 나의 품 안으로 도피하도록 너희들을 이끌어야 하고, 절망을 한 너희는 일으켜 세움을 받아야 하고, 탄식하는 너희는 위로를 받아야 하고, 육체와 혼이 연약한 너희는 능력을 받아야 하고, 영의 눈이 먼 너희는 볼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 모두에게 위로부터 너희들에게 울려 퍼지는 말씀을 통해 내 사랑을 증명해주기 원한다. 왜냐면 축복되기 위해 나를 깨닫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내 자녀들에게 나 자신이 아버지로서 다가가기 때문이다.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자신을 다스리라는 권면. 온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일.

B.D. No. 1003

1939년 7월 12일

너희를 다스려, 온유하고, 인내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종말의 때도 너희에게 시험의 시간으로 주어졌고, 너희가 종말의 기간 동안에 성장해야 하고, 너희 혼에 도움이 되게 너희를 양육하고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를 최우선 과제로 성취시키려고 추구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 땅에서 이 과제를 성취시킬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자신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 너희 혼에 불리한 모든 것이 자라나기 때문이다. 주님 자신이 너희에게 알려 주는 것을 들으라. 이 땅의 나의 자녀인 너희는 서로 간에 사랑으로 대하게 열심히 노력해야 만한다. 너희는 너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깨닫고, 이 땅에 거하기로 선택했다. 너희는 연약함과 실수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에게 제공된 기회를 활용하려는, 항상 너희 자신을 강요하는 가운데 강하게 되어야 하고, 너희의 실수에 대항해 승리하려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만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내가 어떠한 인내로 너희의 연약함을 항상 그리고 항상 또 다시 간과해야만 하고, 얼마나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아직 줄어들지 않은 것을 생각하라. 내가 얼마나 인내하지 못할 원인을 가졌는지, 어떻게 내가 아직 최고의 오래 참음과 긍휼로 나의 자녀들을 나의 심장으로 영접하고, 그들이 실수하면, 그들을 사랑하며, 용서하였는지 생각하라.

내가 이 땅에 거할 때, 죄악 되고, 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 내가 그들에게 행한 모든 선한 일에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답하고, 결국에 가서는 나를 말할 수 없게 고통스럽게 만든 인류에 대해, 아주 큰 인내가 필요했음을 생각하라. 사람이 얼마나 심하게 내가 굴욕을 느끼게 하고, 모든 고통을 가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나를 십자가에 매달았느냐?

그렇지라도 나 자신이 이런 가장 쓰라린 불의를 인내하며, 나의 어깨에 짊어지고, 나에게 고통을 가한 사람들에게 나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지 않았다. 나는 하늘의 아버지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기를 구하고, 인류를 버리지 않았고, 그들을 인내와 사랑으로 얻어, 그들을 구속해 주려고 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너희도 자신을 다스리는 덕성을 행해야 한다.

너희는 서로를 위해 살아야 하고, 항상 단지 서로 간의 고통을 줄여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온전하게 되게 해야 하고, 종말의 때를 헛되게 살지 않아야 한다. 너희의 모든 염려와 고통을 나에게 희생제사로 드려라. 너희는 비둘기처럼 부드럽게 될 것이고, 모든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간에 이해하게 될 것이고, 내적인 평안이 너희 심장 안에 임할 것이다. 너희가 자신을 잃을 위험에 빠지면, 나는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1941년 5월 10일

사람은 자신을 온유해지고, 인내하도록 양육하기 위해, 사람의 잘못된 의지때문에 모든 위험에 빠진 이웃 사람의 혼을 생각하고, 이제 이런 혼을 도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너희 사람들은 혼이 포로가 된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긍휼로 이런 사람을 대하게 될 것이고, 그의 의지가 혼의 사슬을 풀고, 혼에게 가장 큰 자유를 주게 하기 위해, 모든 사랑과 인내로 그들에게 역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는 것과 과격함은 잘못된 의지를 강하게 하고, 혼은 더욱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선하고 사랑이 충만한 노력이 항상 이웃사람 안에 선한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단지 이런 방식으로만 위험 가운데 있는 이웃사람의 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혼은 자신의 사슬을 푸는 일에 도움을 주는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한다. 의지가 선한 쪽으로 향하게 하는 일이 항상 혼에게 쉬워지게 때문이다. 반면에 이웃사람이 혼을 사랑이 없게 대한다면, 혼의 곁형체는 더 굳어 진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하는 일은 단지 고집불통과 동시에 사랑 없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혼이 혼의 사슬이 쉽게 느슨해지는 것을 느낀다면, 선에 대한 혼의 저항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사슬이 대적자의 권세이지만, 그러나 선한 의지를 통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사랑과 인내를 베푸다면, 의지도 또한 선을 향한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에서 나온 모든 것을 행복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이런 사랑을 사랑으로 깨달아야만 된다. 인내하지 못함과 과격함은 절대로 사랑을 짐작할 수 없게 만들고, 그러므로 동시에 이웃사람을 흥분하게 만든다. 이런 일은 혼이 큰 위험에 빠지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러한 위험을 해결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너희의 성품을 통해, 사랑과 선함과 인내와 온유를 통해, 부드러운 자극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악한 세력으로부터 혼이 자유롭게 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

아멘

1943년 9월 12일

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기 위해, 나 자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해, 나의 말을 심장으로 영접할 수 있기 위해, 가장 큰 참을성과 겸손이 요구된다.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일하기 원하는 사람은 참을성이 있고 겸손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고, 거만하게 마찬가지로 나의 피조물인 이웃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이웃 사람을 향한 전적인 사랑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 자신이 단지 이런 사람을 통해 역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 자신에게 아주 큰 인내심이 있고, 너희가 나를 따르도록 내가 가장 깊은 겸손으로 이 땅의 길을 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와 같이 참을성이 있게 되려는, 너희 이웃 사람을 심장의 겸손으로 대하려는 열심을 드러야 만한다.

너희는 동시에 이웃 사람의 사랑을 얻어야만 하고, 너희를 위해 그들을 얻으려고 해야만 한다. 너희는 이웃 사람을 잘못 인도받은 친구로 여겨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능한 곳에

서 모든 인내로 그들을 가르쳐주려고 해야만 한다. 너희는 겸손 가운데 머물러야만 하고, 그들이 오류 가운데 거한다면, 너희 심장이 그들을 거만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는 언제든지 너희가 진리를 위해 나서야 함을 생각해야만 한다. 너희가 한번 진리를 깨닫고, 나로부터 직접 진리를 받는다면, 너희는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만 하고, 반박하는 말로 인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나의 사랑을 생각하는 가운데 너희 혼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깨달은 것을 이웃사람에게 주려고 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너희가 확신하는 것에 신실하게 머문다면, 너희가 오류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그럴지라도 너희는 심장으로 겸손하게 머물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항상 그리고 항상 또 다시 진리가 그의 권리를 갖도록 돕기 원한다면, 어느 누구도 너희의 겸손을 시험해보기 위해 너희가 확신하는 것을 버리라는 요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진리를 영접하지 않는 곳에서, 영적인 저항이 아주 큰 곳에서, 어떤 강요도 하려고 하지 말라.

진리가 스스로 말해야만 한다. 사람들이 진지한 의지를 가지고 진리인지 시험해본다면, 진리는 스스로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심장의 겸손이 필요하고, 창조주 앞에 피조물들이 낮아져 복종하는 일이 필요하고, 겸손을 증거하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는 나의 은혜에 의해 붙잡힘을 받을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겸손한 사람에게 나의 은혜를 베푼다. 단지 겸손한 사람이 진리에 도달한다. 그러나 진리는 진리를 방어하라는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오류에 빠진 이웃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대한 겸손이 손상을 입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항상 지속적으로 인내해야 하고, 아주 큰 인내와 아주 큰 사랑을 요구한 나의 이 땅의 길을 생각해야 한다. 인내하고 온유하라. 너희는 초기에는 너희에게 저항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온유와 인내는 사랑의 증거이고, 사랑은 능력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모든 저항을 이긴다. 왜냐하면 어떤 권세도 사랑에 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아버지 집의 거처. 영원한 고향.

B.D. No. 3808

1946년 6월 22일

나는 너희를 나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기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약속을 한다면, 너희는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가운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의 말씀이 진리이고, 너희가 나의 뜻을 성취시키면, 나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이다. 너희의 모든 고난은 끝이 나고, 모든 세상 염려가 사라질 것이고, 영이 자유한 가운데, 이 땅의 물질에 묶이지 않은 가운데, 축복된 영들에게 속한 나라인 넘치게 영광스러운 영역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너희는 저 세상의 혼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나의 말씀을 믿고, 너희가 이 땅을 떠난 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거처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이 거처는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에게 속한 존재들을 위해 준비한 거처이고, 진실로 그들의 의지로 사랑의 삶을 산 사람들이 살게 될 거처이다.

너희가 너희의 이 땅의 삶이 단지 영원한, 진정한 삶을 위해, 거처가는 짧은 과정임을 안다면, 너희는 너희의 육체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염려하느냐? 너희의 이 땅의 삶을 단지 너희 혼을 올바르게 형성하기 위해 활용하라. 너희의 저 세상의 운명은 비교할 수 없게 축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심장이 갈망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갈망이 육체를 위한 것이 되지 않게 조심하라. 왜냐하면 육체는 소멸되고, 영원히 남는 것은 단지 영적 재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영적 재물을 모든 심장으로 갈망하라.

그러면 너희 혼은 아주 아름다운 영역에 거할 것이다. 혼은 너희가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창조물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혼은 아버지 가까이에 있음이 혼을 끝없이 행복하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축복을 높이는 모든 것을 혼에게 주는, 자신의 고향인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자녀인 이 땅의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너희가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오면, 나는 너희 모두가 축복된 삶을 살게 한다. 왜냐하면 나의 집에 많은 거처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거처를 차지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도록, 모두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살라. 영의 나라에서 너희에게 나의 사랑이 베풀어질 것이다. 육체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너희 이웃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라. 나의 사랑이 너희에게 똑 같은 크기로 공급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측량한 대로 영의 나라에서 너희가 측량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약속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짧은 삶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너희에게 견딜만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잃은 것을, 만약에 너희가 자유의지로 베풀고, 영적 재물을 얻기 위해, 세상 재물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내가 나의 나라에서 천 배로 갚아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이 땅의 고난은 단지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영원 가운데 너희의 삶은 영원히 지속이 되고, 나의 아버지 집의 축복은 종말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정의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관하여.

B.D. No. 1869

1941년 3월 30일

사람 안에 정의감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사랑이 없어 보이는 행위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자신이 고귀한 것으로 느끼고, 자신에게 오류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게 허용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 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자신과 자기 행동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도 공의롭게 판단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서만 모든 결점을 찾고, 자신은 결점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행위를 고귀한자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 그러므로 그의 판단은 잘못이다. 모든 사람들은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스스로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고, 이로써 자신을 고귀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자신 안에 한가지 결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온전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가 사랑이 없이 행한다면, 그는 이런 행위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 행위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고, 자신의 행위를 바르게 판단하기에 무능하다. 이런 사람은 정의감이 부족하다. 그는 자기 자신의 행동은 항상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남의 작은 실수로 인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어떤 높은 수준의 서있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고상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책망할 만한, 어떠한 권리가 없는 것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그가 항상 다른 사람의 연약한 점으로 인해 비판하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의 연약한 점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정의감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그렇게 빠르게 비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과 동일한 상황에 서보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결점에 대해 이해심을 갖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는 진실되어야 한다. 그는 일어난 상황을 상황대로 보아야만 한다.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잣대로 재기 쉽고, 이로서 모든 정의로운 생각과 판단을 배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절대로 과대평가해서는 안되고,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재판해 보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일이다. 그러할 때 사람이 자신에 대해 진실하고, 남의 행동방식을 불의하게 판단하며, 자기 자신은 고귀한 것처럼 생각하는 자기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게 된다. 이로써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판하고, 자신이 그의 재판관이 되기 전에, 먼저 자신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아야 한다.

아멘

너희는 공의롭게 생각하고, 행해야 한다. 이 일에 어떤 사람도 제외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간에 사랑해야 할 내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않아서는 안 된다. 왜냐면 형제가 잘못을 범하면, 너희 자신이 심판해서는 안 되고, 진실로 공의로운 재판관인 나에게 심판을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 같은 사랑을 느끼는 일은 실제 어렵다. 너희 모두가 단지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모두를 창조했음을 생각하면, 그들이 아버지를 떠났을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이 항상 영원히 모든 자신의 자녀들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희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붙잡힘 받은 것을 알고, 사랑으로 돌봄받는 것을 느끼고, 너희를 항상 보살펴주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적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가 또한 내 자녀이고, 내가 사랑하는 너희 이웃에게 사랑이 없이 행하고, 사랑이 없이 생각하면, 너희가 너희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적게 만드는 것이다.

너희가 사랑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그들 안에 혼이 있고, 이 혼이 또한 자주 가장 큰 영적인 위험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불쌍하게 여길만 하다. 왜냐면 바로 이런 사람은 선하지 않고, 그 안에서 사랑이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너희가 이런 혼의 위험을 보면, 너희 안에 단지 사랑의 불씨라도 있다면, 가장 깊은 공황로 혼을 돕기를 원할 것이고, 너희가 이런 혼의 위험이 줄어들게 해줄 때까지 평안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단지 혼을 보고, 너희가 이런 혼을 가진 사람에 대해 더 이상 혐오감을 느끼지 않고, 전적으로 눈이 먼 사람처럼 그를 돕고, 그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일을 잊게 될 것이다.

이웃이 너희 안에 사랑을 깨어나게 할 수 없다면, 너희는 항상 이웃의 혼을 생각해야 한다. 혼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고, 나는 아론 모든 혼들을 공황히 여기고, 혼들을 돕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자유의지에 간섭을 할 수 없고, 혼이 스스로 그의 길을 가게 해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는 혼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주 사람에게 역사하여, 그가 자신 안에 사랑을 깨어나게 할 수 있고, 이로써 그의 큰 영적인 위험을 줄이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의 자유의지에 간섭하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 권세가 없는 곳에서 너희가 도움을 줄 수 있다.

너희가 아직 죄에 묶여 있는 너희 이웃을 이미 성장한 단계에 도달하도록 돕는다면, 너희는 공의롭게 생각한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내 은혜가 너희를 도왔기 때문이다. 내 은혜는 또한 아직 지하에 있고, 내 대적자가 아직 묶고 있는 존재들을 돕기를 원한다. 너희는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도와야 하고, 너희는 길을 잃은 자녀들이 영원한 아버지인 나에게 사랑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너희 자신이 내 사랑과 내 은혜로 찾은 것을 그들이 찾도록 도와야 한다.

아멘

공 의로운 사람은 내 나라에서 공의를 체험할 것이다. 왜냐면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은 나로부터 자신에 대해 자신이 만족할 만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이웃에게 전적인 공의를 가지고 대해야 한다. 이는 사람이 이웃을 형제처럼 대해야 함을 의미하고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는 모든 것을 나누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는 이웃을 공의롭게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말해 두 자녀를 똑 같이 사랑하고 한 자녀를 다른 자녀에 비해 뒤에 두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이는 사람의 혼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내용에 특별히 해당 된다. 세상적으로도 이웃에게 공의를 행해야 한다. 그래서 절대로 지나치게 이점을 갖거나 불의하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세상 재물을 서로 다르게 받게 되는 일은 피할 수 없다. 이는 내 영원한 구원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사람들의 서로 다른 환경이 서로 간에 도우려는 의지를 높이기 때문이다. 자유의지로 주는 일이나 자유의지로 돕는 일을 하는 역사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이고 자신의 완성을 위해 이 땅에서 행해야만 하는 이웃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영적으로 그에 대한 깊은 사랑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에게 인도되려면, 모든 사람이 나에게 향하는 길을 찾으려면,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내 자녀로 영접받을 수 있는 자신과 같은 권리를 가진 자신의 형제로 여겨야 한다. 어떤 사람도 자신에게만 유일하게 이런 권리가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비록 자신의 형제에게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자신의 형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도움을 줘야 한다. 사람이 이웃에게 먼저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을 손에 주면, 그는 이웃에게 공의를 행한 것이다. 이웃이 그의 사랑의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그 자신이 책임져야만 한다.

그러나 공의로운 상급은 확실하게 보장 된다. 그 자신이 나누어 준 것처럼 그는 같은 방식으로 나로부터 받을 것이다. 이처럼 공의는 사랑의 역사이고 그들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그러나 혼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해줘야만 한다. 제공을 받아 기뻐하는 사람은 자신과 같은 환경에 있지 못한 자신의 이웃들을 공의롭게 생각해야 한다.

그 자신이 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공의를 기뻐하기 때문에 올바른 이웃사랑이 지시하는 것처럼 그의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공의로운 모든 사람을 내가 축복하기 때문에 그는 이웃과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나눠야 한다. 이처럼 영의 나라에서도 나에게 의해 사람은 제공 받고 축복받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 사람들이 갈아져야 할 내 원래의 성품에 공의가 속해 있기 때문이다. 공의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이 땅에서 다시 얻어야 할 사랑의 속성이다. 공의는 원래 초기에 너희가 가졌던 덕성이다. 너희가 온전한 존재로 너희의 아버지의 집의 나에게 돌아 가기 원하면, 너희가 공의를 다시 영접해야만 한다.

아멘

너희에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내가 역사할 것이다. 왜냐면 나에게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너희의 사랑의 정도를 높이려고 하라.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라. 위험에 처한 이웃을 영접하라. 이를 통해 너희의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라. 너희 이웃을 한때 축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내가 창조한 너희의 형제로 여겨라. 가장 큰 기적을 이루고 너희 인간들이 가능하게 여기지 않는 일들을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 단지 사랑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라. 나는 진실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항상 단지 내 사랑과 지혜가 언제 내 능력이 나타나게 할지를 정한다.

너희는 진실로 너희의 의지와 너희의 사랑으로 내 의지와 내 사랑을 정할 수 있고 너희는 나에게 강요를 할 수 있고 내가 그런 일을 아주 기뻐한다. 왜냐면 사랑은 절대로 부담을 주지 않고 항상 단지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에게 너희의 사랑을 주면, 마찬가지로 내 사랑을 너희에게 나타내 너희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사람들에게 아주 다양한 과제를 주고 나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를 안다. 나는 그가 도울 준비가 되어있는지 언제 도울 준비가 되어있는지 안다. 나는 자신의 도움을 주려는 준비된 자세를 통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그에게 보내 세상적인 종류이든 영적인 종류이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너희가 그에게 전하게 한다.

세상 물질을 나누어 주는 일을 통해 너희는 나를 항상 사랑을 증명한다. 왜냐면 너희가 내 가장 작은 형제에게 행하는 일이 나에게 행한 일이기 때문이고 게다가 너희는 나에게 너희가 이미 물질을 극복했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적인 것을 나눠주면, 이런 일은 내 역사이다. 내가 너희가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혼이 지치고 배고파 너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너희에게 인도해 그들의 혼이 강해지고 건강하게 만든다.

이런 도움을 주려는 자세에 내가 특별한 상급을 줄 것이다. 왜냐면 이런 일은 생명을 주는 영적인 내용을 전하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가 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을 전하면서 나를 섬기는 사람과 이웃의 혼의 구원에 심장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은 내 도움을 받는 일을 전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 왜냐면 그가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사랑의 역사를 실행하기 때문이고 그가 영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다시 전하기 위해 이전에 나를 향한 깊은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먼저 가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나를 항상 사랑의 아버지로 깨달을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이 땅에서 그를 인도할 것이고 그의 모든 길을 축복할 것이고 때가 되면, 내가 특별하게 역사할 것이라는 내 약속들을 성취시켜 줄 것이다.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위험 가운데 처한 모든 사람이 너희의 이웃이다. 그들에게 너희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줘야 하고 그들을 도우려는 진지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진실로 너희는 항상 또 다시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너희가 나누어 줘야 할 것들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며 계산하지 말고 충만하게 주라. 왜냐면 너희가 측량하는 대로 너희가 측량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랑 안에서 주는 것은 항상 너희가 도움을 주게 하는 너희의 사랑의 정도의 합당하게 천 배의 보상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염려하기 때문이다. 항상 단지 너희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하고 모든 유혹을 이기라. 너희의 성장 정도에 위험을 주는 사랑없음에 너희가 빠지지 않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항상 내 임재를 느끼고 행복한 정도로 내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나는 전능하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단지 내 지혜가 올바른 때가 언제인지 내가 특별히 너희에게 역사할 수 있는 때가 언제 인지를 알고 너희가 분명하게 내 사랑을 체험할 때가 언제인지 내가 너희의 육신과 혼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때가 언제 인지를 안다. 왜냐하면 내 도우려는 의지는 너희의 도우려는 의지보다 훨씬 더 크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주기 원하는 내 은혜의 선물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공홀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홀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공홀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B.D. No. 3460

1945년 3월 9일

그 공홀을 베풀고, 위험과 환란에 빠진 이웃 사람들과 함께 하고, 위험과 환란을 극복하도록 **○** 도와주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들에게 은혜가 볼 수 있게 함께 한다. 왜냐면 그들이 나의 계명을 성취시키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 자신을 사랑한다. 왜냐면 그들이 나의 피조물인 이웃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 때문이다. 의지할 데 없고 외로운 사람들은 자신에게 베풀 사랑을 감사하게 느낄 것이고, 사랑은 응답하는 사랑이 깨어나게 할 것이다. 이 땅의 너희들은 모든 사랑의 불씨가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단지 사랑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나에게 귀환하게 하는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측량할 수 없다.

세상적인 영적인 어려움에 빠진 모든 사람은 받는 사랑의 도움을 행복하게 느낀다. 이 사랑은 힘으로 역사한다. 왜냐면 이 힘은 영원한 사랑인 나로부터 나왔고, 단지 생명이 깨어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도움을 주는 일은 선한 생각과 선한 느낌을 갖게 하고, 이웃 사람의 혼에 감동을 주고, 같은 역사를 행하도록 자극한다. 모든 사랑의 역사는 나의 대적자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러므로 나와 의 간격을 줄인다. 공홀을 행하도록, 사람들이 생각하고 나에게 향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혼의 고통의 결과로 육체의 고통이 나타나야만 하는 육체와 혼이 병이 드는 고난의 때가 필요하다.

너희가 공홀을 행한다면, 너희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으로 선한 일과 위로 해주는 격려와 사랑이 충만한 돌봄으로 이웃 사람들의 육체와 혼을 일으켜 세운다면, 그들에게 나에게 향하는 길을 알려 주는 것이다. 그러면 육체와 혼이 건강해질 것이다. 왜냐면 혼이 사랑의 힘을 느끼고, 강하게 되고, 자원하여 나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응답하는 사람을 깨어나게 한다. 사랑의 불씨가 불타오르는 곳에서 나 자신이 역사할 수 있다. 왜냐면 사랑이 있는 모든 곳에, 내가 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거하는 곳에는 사람이 가진 사랑의 정도에 따라 위험이 더 이상 크게 않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을 통해 응답하는 사랑이 깨어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라. 너희는 너희의 공홀의 역사를 통해 혼들을 구속한다. 혼을 구원하는 일은 너희에게 항상 단지 사랑만이 인정받는 저 세상에서 행복한 운명을 갖게 해줄 것이고, 너희가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준 혼들이 너희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아멘

공홀. 질병과 연약함.

B.D. No. 1032

1939년 7월 31일

병 든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그들이 고난을 당해야만 하고,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공홀을 베풀고, 항상 그들의 육체의 고통이 이 땅의 삶

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 너희는 이런 고난을 줄이려고 시도해야 하고, 언제든지 그들을 돕기 위해 너희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

이런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한 사람이 이웃 사람을 돌보아야 하고, 사람들의 고통을 대해, 너희 안에서 사랑 없음이나 무관심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느냐!

얼마나 어렵게 이런 질병과 연약함이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짓누르느냐! 그들은 이런 상태에서 무기력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해주는 모든 말에 감사한다. 그들의 귀에 사랑의 말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자주 피폐해야만 하느냐! 그들은 외롭고, 그들의 혼은 깊은 슬픔에 빠져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을 갈망하지만, 단지 아주 적게 사랑을 받기 때문이다.

주님은 긍휼을 가르치고, 영원한 축복을 약속한다. 긍휼은 사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단지 사랑으로 행하는 일만이 혼에게 구원을 준다. 긍휼은 가장 순수한 이웃사랑이다. 왜냐하면 긍휼은 돕기를 원하고, 댓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육신이나 혼이 병들 수 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혼이 병들고, 연약한 사람에게 올바른 치료의 수단을 긍휼히 여기는 이웃사랑으로 제공하는 일은, 항상 말할 수 없이 큰 가치가 있다.

육체의 고통은 언젠가 끝이 나게 되지만, 너희가 위험 가운데 있는 혼에게 이웃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혼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혼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연약하고 쇠약한 사람들은 두 배의 지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연약한 육체가 자주 혼을 연약함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단지 혼들이 게으름에서 깨어나, 이제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도록 자극하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런 혼들을 도울 수 있다.

혼이 올바른 깨달음을 얻으면, 사람은 자신의 육체의 고통을 인내하며 견딘다. 너희가 위험 가운데 있는 혼을 이웃사랑으로 도움으로써 혼이 이 깨달음에 도달한다. 긍휼을 행하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심는 것이다. 이 땅의 자녀가 이 긍휼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긍휼을 받는 사람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아야만 하게 되고, 그 자신에게 행해지는 모든 사랑의 역사를 통해, 비추는 영의 능력을 통해, 그의 관점은 위로 향하게 돼야 만한다. 이처럼 병든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긍휼은 두 배의 축복된 역사를 가져오고, 병든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의 상태를 개선시키는 일에 도움을 주고, 동시에 혼의 상태를 아주 견딜만 하게 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너희의 도움과 사랑이 충만한 마음을 전해주는 일을 잊지 말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을 세우는 일을 잊지 말라. 그러므로 그들의 고난의 기간이 영적인 성장의 기간이 되게 하라. 주님은 모든 긍휼을 가지고, 그들의 고통을 당하는 이웃사람을 향해 마음을 쓰는 사람을 축복할 것이다.

아멘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없는 오류에 빠진 혼들을 위해 너희가 애를 쓰면, 너희에게 여러가지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들에게 빛을 주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 주고, 그들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공훈의 역사이고, 이웃 사랑의 역사이다. 이 역사는 영원을 위해 큰 의미를 가진 역사이다. 그러므로 나에 의해 높은 평가를 받는다. 나는 나의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해주기 원한다.

육체적으로 이웃 사람을 돕는 일도 너희가 상급을 받는 하나의 사랑의 역사이다. 그럴지라도 혼이 자신의 상황을 깨닫는 상태에 도달하게 해주고, 이를 통해 변화되게 해주는 일은, 다시 말해 유일하게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의 나라로 인도하는 올바른 길에 들어서게 해주는 일은 훨씬 더 상급이 큰 일이다. 왜냐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얻은 단지 영적인 깨달음을, 즉 증명할 수 없는 깨달음을 전하는 일은 동시에 깊은 믿음을 증명하고 게다가 이 일은 모든 영원까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너희의 노력들이 혼이 영원히 잃지 않게 될 빛이 충분한 상태가 될 수 있게 도움주는 일을 생각하면, 너희가 이런 혼들이 어두운 상태로 저 세상으로 가면, 이런 혼들의 운명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피하게 해주었다는 의식이 이미 너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사람에게 빛을 주는 일은 가장 큰 사랑의 역사이다. 왜냐면 이 역사는 올바르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오류에 빠진 혼들을 돕는 일이 겉으로 보기에 자주 효과가 없게 보인다. 그러나 혼이 한번 받은 것이 이 땅에 큰 위험이 닥치는 경우에 다시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이 자신이 받은 것을 고백하는 일이 항상 가능하고 이런 일은 항상 너희의 상급이 될 것이고 너희의 상급으로 남을 것이다. 왜냐면 구원을 받은 혼이 언젠가 빛 안에 서게 되고 자신의 구원자의 도움으로 자신이 어떤 운명을 피하게 되었는지 깨달으면, 그는 자신의 구원자에게 영원히 감사하기 때문이다.

아멘

공훈.

내 공훈이 없었다면, 너희가 영원히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가운데 너희는 공훈을 행해야 한다. 그러나 공훈은 고통당하는 일을 볼 수 없고 돕기 원하는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자신 안에서 이웃에 대한 공훈을 느끼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웃의 운명이 그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였을 것이다. 공훈은 다른 형태의 사랑이다. 왜냐면 사랑은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고 공훈은 먼저 고통을 제거해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느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이웃의 고통을 공훈히 여기고 그는 동시에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자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도울 자세를 갖는다.

사랑은 들어 나는 위험이 없이도 행할 수 있고 전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가운데 사랑을 베풀고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러나 차가운 심장을 가진 사람도 이웃의

고난에 사로잡힐 수 있다. 그러면 긍휼히 일어나고 사람 안에 사랑이 불타오르게 되고 다른 사람의 비참함이 사랑을 행하게 만든다. 긍휼의 역사는 또한 그가 위험 가운데 있게 되면, 그에게 내 긍휼이 임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본다. 비록 너희 자신에게 너희의 모든 죄와 연약함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나는 너희의 상태를 긍휼히 여긴다. 너희의 긍휼도 자신의 죄로 비참함에 처한 사람들에게 향해야 하고 긍휼을 심판하는 것처럼 베풀어서는 안 된다. 긍휼은 합당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해당돼야 한다. 이웃의 비참함이 진실로 그들의 죄를 상쇄하는 일이지만 그럴지라도 고통이 아주 커,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하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나 자신이 너희의 큰 죄를 내 사랑을 통해 사하여 주지 않았다면, 너희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겠느냐! 너희 스스로 자유의지로 택하였기 때문에 실제 너희 운명은 공의로운 운명이었지만 그러나 나는 단지 너희의 연약함과 너희의 낮은 영적인 상태와 내 대적자가 너희에게 채운 너희의 사슬을 보았고 보고 있다. 나는 절대로 스스로 너희 자신을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수 없는 너희의 무기력함을 보았고 내 긍휼이 이제 공의의 자리에 들어섰다. 나는 너희가 최종적으로는 너희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도왔고 구세주 예수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입었고 너희를 포로로 잡고 있는 자에 대항하여 싸웠다.

그러므로 내 긍휼은 너희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너희 죄로부터 너희가 자유롭게 되도록 도왔다. 그러므로 너희도 긍휼을 행해야 한다. (1954년 4월 8일) 너희는 사랑의 인도를 받아 이웃의 고난이 끝나도록 도와야 하고 죄를 지었고 이로써 너희의 도움을 받을 권한을 실제 잃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 너희는 그들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그들의 비참함을 생각해야 한다. 긍휼히 여기는 사랑은 너희의 심장이 아직 강박하게 되지 않았고 동시에 같이 고통을 느끼고 비참한 사람들과 형제와 같이 연합된 것으로 느낀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큰 위험이 보게 되면, 너희의 눈이 이를 피하지 말라.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 사랑으로 도우라. 모든 죄인에게 해당되는 내 긍휼을, 나로 하여금 구속 사역을 완성하게 만든 내 긍휼을 모범으로 삼으라. 왜냐면 너희 모두가 죄가 있었고 그러나 나는 이 죄를 나 자신이 짊어지고 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렀기 때문이다.

아멘

긍휼히 여기는 일. 심장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B.D. No. 6025

1954년 8월 16일

사 람들이 너희에게 행하기 원하는 일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행하라.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의 입장에 서라. 너희가 이런 고난 가운데 도움을 받았다면 너희가 얼마나 감사할 것인지 생각하고 너희의 힘이 닿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그런 일이 내 눈 앞에 올바른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를 차갑게 대하면 너희 심장이 이미 강박해진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그러면 너희가 내 계명을 성취시키지 못하기 때문이고 너희의 혼이 성숙할 수 없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이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이요 목표이다.

이웃의 고난이 실제 이웃 자신의 잘못 때문 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웃을 도와야 한다. 왜냐면 너희 자신도 죄에 빠질 수 있고 이를 통해 고난에 빠질 수 있고 너희가 불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너희가 또한 내 사랑과 긍휼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심장이 강박해지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위협에 처한 사람들을 지나치면 너희는 생각으로 너희 자신을 같은 고통의 상태에 두라. 그러면 얼음이 녹을 것이고 너희가 아직 변화될 수 있다면 긍휼의 물결이 너희를 덮치게 될 것이다.

너희 모두가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라. 너희 자신이 너희의 운명을 스스로 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양육을 위해 너희에게 일어나기 원하는 일을 너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라. 오늘 너희의 이웃에게 일어난 일이 내일은 이미 너희 자신의 운명이 될 수 있고 너희가 도움을 기대한다면 너희 이웃에게 도움을 주라. 그러면 너희는 실제 잘하게 될 것이다. 너희 자신을 우월하다고 느끼지 말고 너희가 세상적으로 형편이 더 낮거나 너희 자신의 운명을 더 잘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웃을 무시하지 말라.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이전에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을 느끼도록 내가 너희가 같은 상황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심장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모든 고난에 동참하고 도움을 주려고 시도하라.

왜냐면 너희가 주고 너희가 나눠준 것을 풍성하게 돌려받기 때문이다. 너희는 받는 사람의 심장을 얻고 좋은 생각이 너희를 뒤따르고 사랑으로 너희를 기억하는 일이 너희가 너희 혼의 성숙을 위한 힘으로 느끼게 되는 일이 너희의 가장 큰 이득이다. 항상 내 말씀을 기억하라: "너희가 가장 작은 형제들에게 행한 일은 나에게 행한 일이다." 그러면 너희가 고난을 줄이는 일이 쉽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는 또한 이웃 사랑을 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계명을 성취시키고 너희의 혼을 성숙하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

B.D. No. 6352

1955년 9월 11일

너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체험한다. 왜냐면 내 사랑은 끝이 없고 위험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향하고 아직 나에게 저항하고 있는 그러므로 실제 사랑을 받을 권한이 없는 모든 자신의 피조물에게도 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위험에 빠진 피조물들을 도와준다. 하나님은 분노할 수 없고 단지 사랑하기 원하고 용서하기 원하고 돕기를 원한다. 어떤 죄도 그의 사랑이 용서하기를 원치 않을 정도로 큰 죄가 없다. 단지 그의 공의가 또한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그에게 공개적으로 저항하는 동안에는 그의 피조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저항을 꺾기 위해 그러나 총만하게 자신을 선물해줄 수 있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는다. 비록 죄의 크기가 아주 클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긍휼로 죄인을 바라보고 그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어 이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용서를 받기 위해 자신을 돌이켜서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향하게 한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분노할 수 없고 사랑은 항상 단지 행복하게 해주려고 시도한

다. 하나님은 모든 혼들에게 긍휼을 가진 재판장이다. 다시 말해 그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항상 용서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단지 혼이 스스로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면, 이런 저항이 하나님의 사랑을 효과가 없게 만들고 모든 긍휼의 역사가 헛되게 만든다. 왜냐면 이렇게 되는 일이 영원히 질서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혼이 단지 스스로 거부한다면, 혼은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큰 염려는 항상 단지 사람들의 의지가 변화되는 일로 향한다. 혼이 타락하여 스스로 일어설 수 없게 되면, 의지의 변화가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면 혼은 그가 비록 벌어 드리지 않았지, 그러나 혼이 또한 거부하지 않는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혼은 은혜를 통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왜냐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불행한 자에게 낮아져 임하기 때문이다.

깊은 곳에서 끝 없이 비참한 불행을 아는 사람이 단지 긍휼을 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이 단지 긍휼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또한 긍휼을 느낄 수 있다. 만약에 그가 타락한 존재들의 운명을 안다면, 비록 그가 느낌으로 이 운명을 측량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타락한 존재들의 불행을 아는 지식이 또한 그 안에서 깊은 긍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이로써 그는 이제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이런 하나님을 멀리 떠난 혼들을 위해 자신을 드린다. 그가 이제 이런 불행한 혼들을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그의 긍휼히 여기는 도움의 요청이 이런 혼들의 저항을 끝낼 수 있다. 왜냐면 혼들이 기도하는 사람의 사랑을 느끼고 양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사랑은 항상 하나님의 높은 평가를 받는다. 긍휼히 여기는 사랑은 혼이 높은 성장 정도에 있다는 증거이고 사람의 진실 된 사랑의 증거이고 절 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혼들을 긍휼히 여긴다. 모든 혼들이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영접했다면, 진실로 모두가 깊은 곳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혼이 저항하는 가운데 있다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은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위험한 상태와 모든 불행한 상태는 하나님이 존재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로 추구한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긍휼은 항상 단지 존재의 의지에 사랑으로 역사하여 그가 자신을 바꾸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에게 길을 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에 의해 존재가 붙잡힘을 받아 위로 이끌림 받게 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시도할 수 없다.

모든 구원하는 역사는 긍휼의 역사이다. 왜냐면 존재가 자유롭게 돼야 할 위험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위험이기 때문에 만약에 긍휼이 이 전에 나타나 저항을 끝내려는 마지막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공의가 벌을 가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항한다면, 긍휼도 전혀 역사할 수 없고 공의가 이제 저항에 알맞게 응답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 대로 중단되지 않고 모든 불행한 존재들을 구하려고 시도한다. 하나님의 긍휼은 항상 또 다시 이 땅에 낮아져 임하여 긍휼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모은다. 그의 아주 큰 사랑에 어떤 존재도 지속적으로 저항할 수 없다. 왜냐면 사랑의 힘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사랑의 힘으로 언젠가 가장 강박한 심장도 녹게 될 것이고 존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고 영원히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순수한 심장을 가진 사람. 진리.

B.D. No. 2046

1941년 8월 28일

순수한 심장이 사람이 진리 안에 거한다는 보장을 해준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악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선명하고 순수하게 머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의 생각은 그가 노력하는 것에 합당해야만 한다. 순수한 심장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대항하여 추구하는 모든 일을 경멸할 것이다. 그는 심장의 깊은 곳을 헤아려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불순물도 그가 보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혜가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솟아나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순수한 심장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고,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살고, 다시 말해 자신의 이 땅의 과제를 깨닫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의 없이는 더 이상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모든 불순한 생각이 그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그가 연약해진다면, 그는 하나님께 긴밀하게 용서를 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심장에 불의한 것을 깨닫고, 의식적으로 불의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올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할 것이고, 하나님에게 능력과 은혜를 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심장의 순수함이 사람이 올바르게 생각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심장을 순수하게 진리를 받기에 합당하게 만들고, 유지한다면, 심장 안에 진리가 아닌 것을 허용하지 않고, 진리가 아닌 것은, 다른 모든 순수하지 못한 것들처럼, 경멸할 것이고, 그러므로 거부할 것이다. 왜냐하면 순수한 심장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갈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를 향한 갈망은 또한 진리 자체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대적자의 역사를 무력화시킨다. 순수한 심장을 가진 사람은 거짓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잘못된 인도를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모순이 되는 것을 진리로 영접하지 않게 된다. 그들은 비록 이성적으로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심장이 순수함을 통해 영적인 내용에 대한 세심한 느낌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려는 영적인 내용에 그의 심장이 대항하기 때문이다.

순수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은 심장의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무더지게 한다. 그러므로 세상과 세상의 기쁨을 신봉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과 세상의 기쁨을 갈망하는 일은 하나님 만을 생각하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가 세상인 자를 생각하고 갈망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순결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사람이 극복해야 할 것을 지원한다. 그러므로 단지 심장의 순수함에 대한 위험이고, 위험으로

남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순수한 진리를 받는 일에 방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빛이 또한 부족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을 찾지 못하게 된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심장을 깨끗하게 하는 일.

B.D. No. 5515

1952년 10월 24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기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 심장은 내가 그 안에서 거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나는 이전에 모든 신적이지 않은 것들이 제거된 곳에만 거할 수 있고, 내가 거하기에 합당한 곳인 단지 사랑의 성전 안에 거할 수 있다. 심장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심장을 변화시키는 일에 자신에 대한 많은 작업이 요구된다. 왜냐면 하나의 죄성을 치우면, 유사한 죄성이 이미 다시 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장이 덕성으로 채워져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이 일을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해야만 한다.

나는 온전한 사랑이고 인내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와 같이 되어야만 한다. 나는 온유하고 말할 수 없게 화평하고, 그러므로 너희도 나와 같이 되려고 애써야만 한다. 나는 연약한 자에게 아주 관대하고 이해심이 있고, 비록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정도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같은 성품을 요구한다. 나는 나를 모욕한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모든 종류의 은혜의 선물로 응답한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이웃에게 어떤 불의도 행하지 말아야 하고, 너희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도 평상심과 평안함으로 대해야 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의 사랑을 얻으려고 해야 한다.

너희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행한 일을 항상 모범으로 삼으라. 왜냐면 내가 인간으로서 같은 싸움을 싸웠고, 너희도 단지 사랑을 많이 베푼다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랑이 나에게 힘을 주어 승리했기 때문이다. 정화된 심장은 곧 자신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는 지를 깨달을 것이고, 사랑이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 들인다. 사랑이 심장을 아름답게 꾸미고, 내 임재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것도 더 이상 심장 곁에 존재할 수 없다.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너희는 판단하는 일을 나에게 맡겨라. 나는 진실로 공의로 판단한다. 그러나 내 판단은 너희의 판단과 같지 않다. 왜냐면 나는 아직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도 사랑하고, 이들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살았던 내 모범을 따라 살려고 하라. 이러한 시도에 대해 너희는 상급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누구든지 진지하게 이런 시도하는 사람에게 이 의도가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내 모든 힘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내면의 완성을 위해 추구하는 사람은 내면의 완성을 이룰 것이다. 왜냐면 그는 곧 자신 안에서 나를 돕는 존재로 느끼고,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와 함께 모든 일이 그에게 쉽게 될 것이고 또한 너희의 모든 노력의 목표인 성숙한 정도에 도달하는 일도 쉽게 될 것이다. 너희 심장은 내 거할 곳이 되고, 거할 곳으로 머물게 될 것이고, 나 자신이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너희에게 임재할 것이다.

아멘

나는 너희 안에 거하기 원하고, 내 피조물을 내 영으로 전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원하다. 나는 그들이 내 본래의 성품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원한다. 그래서 나 자신이 부인할 수 없게 그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는 동시에 나 자신을 둘러싸고, 이런 일이 그에게는 제한이 없는 축복이 된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심장 안에 거하기 원하고, 내 모든 피조물들이 아버지를 내면에서 영접하게 되어 내가 그들을 내 자녀로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나온다. 내 피조물들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일이 항상 영원히 내 목표이고 내가 추구하는 일이다. 나는 이를 위해 볼 수 있는 세계와 영의 세계를 창조했고, 볼 수 있는 세계는 먼저 내 피조물들이 그들의 성품이 하나님처럼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영의 세계는 짐작할 수 없이는 큰 축복을 하나님의 형상이 된 존재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이 영의 세계에서 내가 내 자신을 내 자녀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내 보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볼 수 있게 하고, 서로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사랑이 최고로 뜨겁게 성장하게 한다. 이로써 너희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인 나와 전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한다.

이 땅에서 또는 영의 세계에서 나를 찾는 존재들은 영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확실하게 성장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데까지 종종 끝 없는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 나는 혼들의 사랑을 얻어, 한 혼이라도 구하려고 노력한다. 왜냐면 단지 사랑이 지금까지 나에게 속하지 않은 존재들의 의지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지의 변화와 의식적으로 나를 구하는 일이 이미 이 땅에서나 또는 영의 세계에서 나와 하나가 되는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보증이다.

나는 너희의 심장 안에 거하기 원한다. 너희는 짧은 이 땅의 삶 동안 나를 찾는 일을 이뤄야 한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자주 어렵고 힘들다. 그러나 너희가 목표에 도달하면, 너희는 어려워했던 이 땅에 삶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 왜냐면 너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장엄한 영의 세계가 너희에게 열리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이 세계는 지금까지 본 사람도 없고 들어 본 사람도 없다.

나는 단지 너희 사랑을 요구한다. 너희가 이를 충족시키면, 이 복된 나라가 너희에게 속하게 된다. 그러면 너희는 내 자녀로서 내 유산을 물려받는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으로 내 형상처럼 변화시켜, 진정한 내 자녀가 되어, 이제 충만한 빛과 능력을 받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이 빛과 능력을 내 의지에 따라 너희 자신의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내가 너희 심장 안에 거하게 하라. 나를 위해 심장의 문을 활짝 열라. 나 자신이 가진 내 원래의 성품처럼 되라. 사랑이 되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라.

아멘

너희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야 하고, 너희는 내가 한때 최고로 축복된 역사를 위해 너희가 머물게 한 곳에서 영원히 거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나 자신이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너희의 축복은 제한이 없고, 제한이 없게 머물 것이다. 왜냐면 영원 가운데 내 나라의 영광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이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있는 일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거대한 일이다. 너희가 이런 영광을 상상할 수 있다면, 너희는 이 땅에서 오로지 이런 영광을 추구하고, 전혀 다른 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나라를 추구해야만 하고, 너희는 자유의지로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왜냐면 그러면 비로소 축복이 너희 운명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기 위한 선행조건은 너희가 자유 의지로 온전함에 도달하는 일이고, 너희는 언젠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얼마나 긴 시간을 연장시키기 원할지는 너희 자신의 자유이고, 너희 자신이 이 기간을 정한다. 너희 육신의 죽음의 순간으로 이미 이 기간이 다 지나갈 수 있고, 이 땅에서 너희가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기다리고 있고, 너희 모두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고 있다.

내 이러한 말로 너희는 요청받는 것으로 느끼라. 내 나라의 나에게 도달하기 위해 진지하게 추구하려는 자극을 받으라. 최고로 영광스러운 너희의 운명을 상상해보라.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속하고 나를 모든 심장으로, 모든 혼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준비한 것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비슷하게라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단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 계명을 지킨다면,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너희는 단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으로 너희 자신을 형성시켜 너희가 소멸되지 않고, 영의 나라가 영의 나라의 빛으로 너희를 영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 갈 수 있고, 나 자신이 너희를 마중 나가고, 너희를 모든 영광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는 내 가까이에서 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표현할 수 없게 축복되고 축복된 상태로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머물게 될 것이다.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이웃 사랑.

B.D. No. 4706

1949년 8월 7일

크거나 적은 평화와 조화는 그리스도적인 이웃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민족이나 국가들이 평화롭게 살게 된다. 사람들이 이웃사랑의 원칙대로 처신하고, 서로 간에 선하게 대하려고 하고, 이웃 사람들이 고난과 염려를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면, 서로 간에 조화롭게 함께 살게 되고 그러면 진실로 이 땅에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얼마나 평화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들은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전적으로 무자비하다. 비록 그들이 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 피해주기를 원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서로 간의 사랑을 느낄 수 없고 그러므로 영적인 퇴보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다. 왜냐면 사랑이 없이는 사람이 영적인 추구를 하지 않고, 사랑이 없이는 영적인 성장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사랑의 법을 유용하게 여긴다. 그러나 이 법은 지켜져야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평화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각자가 진지하게 자신이 이 법 앞에 어떻게 처신하는지 질문해야 한다. 그는 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분명한 곳에서, 자신의 능력 한도 내에서 기쁨을 주기 위해 고난을 줄여주고 고통을 다스리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하는지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이웃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피해야 하는 반면에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

너희가 정당한지 질문을 받으면, 너희 자신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너희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많은 행하지 않은 일들을 발견할 것이다. 일을 통해 이웃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궁핍해진다면, 그런 일은 죄가 된다. 너희가 도울 수 있는 곳에서 도움을 주라. 그러면 너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이웃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지켜주려고 하라. 절대로 자기 사랑이 먼저 말하게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은 잘되게 하면서 절대로 이웃사람을 굶주리게 하지 말라. 이는 말 그대로 또한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면 친절 한 마디, 선한 눈길, 도움을 주는 행동이 이웃사람을 쾌활하게 하고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 일이 없게 하라.

이웃사랑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의 이 땅의 삶은 조화롭게 진행될 것이고, 평화가 임할 것이고, 너희 내면과 너희 주변에 조화가 있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계명에 합당하게 살면, 진실로 이 땅은 낙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세상이 어떠하냐? 모든 악한 성품인 소유욕과 미움과 시기와 싸움과 올바르지 못한 일과 자기 사랑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 간에 친구가 아니고 원수이고,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들은 상처를 낫게 해주는 데 손을 쓰지 않고 새롭게 상처 낸다. 그러므로 악이 항상 더

커지고 사람들은 멸망으로 떨어진다.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었다. 이런 일이 바로 종말을 의미한다.

왜냐면 사랑이 더 이상 없는 곳에 모든 입자들이 강박하게 되기 때문이다. 심장이 사랑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곳에서는 모든 깨달음을 잃고 그 곳에서 모든 생명이 죽게 될 것이다. 왜냐면 단지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이 실제 아직 육체로는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아무런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사랑을 설교해줄 것이다. 이 경고가 너희의 귀를 지나치게 하지 말고, 이 경고가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마지막 부름임을 알라. 종말의 때까지 더 이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음을 알라. 그러므로 너희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돌보라. 이웃사랑을 행하고, 이를 통해 영원한 평화를 얻으라.

아멘

원수에 대한 사랑....

B.D. No. 0605

1938년 10월 6일

너희 원수에게도 선한 일을 행하는데 관심을 가지라. 모든 아주 작은 원수를 향한 사랑이 세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심장에 담아 두어라. 이 일은 너희가 원수의 가시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일은 너희 자신이 은혜에 도달하도록 돕는다. 이 일은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응답하는 사랑이 다시 깨어나게 한다. 이로써 너희는 자신을 극복하는 제사를 드린다.

너희가 어디에서든지 항상 원수 관계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행하기 위해 너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너희에게 충분하다. 이 일이 초기에는 실제 너희에게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서서히 내면의 음성이 너희의 의도를 쉽게 해줄 것이다. 내면의 음성은 너희에게 선한 격려를 해주고, 너희가 사랑을 행할 때까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원수가 너희의 사랑이 그 자신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 지를 인정하길 원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런 사랑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축복된 역사를 일으키는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일이 단지 유일한 위험이다. 그러면 너희는 쉽게 절망하고, 계속되는 사랑을 행하는 일을 중단하려는 경향을 갖고, 이 관점에 얼마나 오류가 있는지를 믿지 않는다.

너희는 영적인 축복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혼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너희는 한때 너희의 잘못으로 인한 모든 우유부단함 대해 쓰라리게 후회할 것이다. 영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성품으로 바뀌도록, 원수관계를 극복하고, 미움과 사랑 없음이 사랑과 선함으로 바뀌도록 항상 역사한다.

서로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일이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 간에 미움으로 원수로 대한다면, 말할 수 없게 해를 끼치고, 사람들 사이에, 혼들 사이에, 모든 영적인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리고 항상 서로 간에 해를 끼치려고 추구하면서 대적자의 그물에 아주 깊이 빠져, 그들이 자유롭게 되는 일은 항상 더욱 어렵게 되고, 자유롭게 되는 일은 그들이 단지 서로 간에 사랑의 역사를 행함으로만 가능하다.

심장 안에 적대감을 가지고 높은 곳을 추구하는 일은 쉽게 가능하지 않다. 이 전에 먼저 적대감을 없애 버려야만 한다. 사람은 심장에서 모든 미움과 원망을 물리쳐야만 한다. 그런 후 같은 크기로 선한 관계를 형성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은 모든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새로운 원수 관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이로써 혼이 자기 자신에 대해 작업하는 일에 퇴보하는 일로부터 보호하는 선한 영적인 세력의 도움이 그들에게 보장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이 계명에 언제든 지 주의를 기울이라. 그러면 너희는 영원을 위한 측량할 수 없는 영적인 재물을 얻을 것이다.

아멘

평화로운 세계. 민족의 지도자.

B.D. No. 0892

1939년 4월 30일

평화로운 세계에는 단 한 가지의 법이 있다. 이 법은 사랑의 법이다. 자원하여 이 법에 순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 세상에 평화를 주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살아야만 한다. 다시 말해 쉬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고, 위로해주려고 하고, 위험을 적게 해주려고 하고, 놀림을 당한 자를 지켜주고, 사람 안에서 다시 사랑을 깨어나게 하려고 모든 것을 시도해야 한다.

이 일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다시 주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단지 사랑 안에서 영적인 깨달음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이다. 단지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는 영적인 양식을 영접할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받기에 합당하게 되기 전에 먼저 사랑 안에서 살아야만 하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 먼저 사랑을 행해야만 한다.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섬기는 사람은 동시에 올바른 삶의 모범을 보여야만 한다. 그는 사랑을 행해야만 하고, 단지 항상 모든 행하는 일의 근거가 사랑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가 시도하는 일이 반대의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미움 속에 머무는 사람의 혼의 생명이 위험해지므로, 그가 시도하는 일이 미움이나 사랑 없음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진실과 공의가 그의 행동을 인도해야 하고, 모든 일을 사랑에 근거를 뒤야 한다. 지속해서 위협을 받으며 사는 사람의 심장에 사랑이 들어갈 수 없다. 그는 원망 가운데 삶을 살 것이고, 이는 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람들의 진정한 사랑을 얻기 위해 모든 일을 지속해서 행하는 사람은 또한 계속 사랑을 깨어나게 하고, 모든 미움과 모든 불화에 대항하여 승리하여, 실제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고,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행동하는 방식이 사랑을 불러일으키는지, 어느 정도 불러일으키는지 또는 세상의 관계에서 어떠한 유익만을 구하는지를 통해 각각의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할 권리가 사람들에게 있다.

항상 단지 민족을 향한 사랑이 민족에게 최선이 되게 행하도록, 그를 이끄는 사람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평안의 상태와 깊은 내적인 행복에 사로잡히게 해주는 역사를 이뤄야만 하고, 사람들이 심장의 사랑으로 그들의 인도자를 생각하고, 이 가운데 자신은 모든 평온 가운데, 이

운을 향한 욕망과 시기와 사랑 없음이 불러일으키는, 이로써 모든 영적인 것을 무너지게 하는 지속적인 위험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자신의 내면의 삶을 돌보기 위해 매진할 수 있게 되어야만 한다.

이를 통해 너희는 평화로운 세계가 너희 안에, 너희 주변에 있는지, 너희의 내면의 세계가 어떠한지를 깨닫는다. 너희는 지도자의 과제가 자기 민족에게, 자기 민족의 혼의 구원을 위해 축복되게 올바르게 성취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안

B.D. No. 8704

1963년 12월 20일

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거할 때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했다. 나는 현재도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한다.

왜냐면 그들이 진실로 그들의 심장에 나 자신을 받아들이면, 단지 나만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이 그들의 심장에 채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내 임재를 느끼고 자신이 축복되고 안전한 것을 느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모든 불행을 막을 수 있고 막을 내 사랑과 권세를 알기 때문이다. 너희는 단지 내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와 긴밀하게 연합이 되었다면 너희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너희는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자녀들을 위험 가운데 놔두지 않음을 안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어 너희가 내 대적자로부터 멀어져 그로부터 도피하려는 올바른 길에 너희가 자녀로서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인 나에게 피하려는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내 아버지의 손은 너희를 감싸고 너희를 안전하게 높은 곳을 향하게 하는 길로 인도한다.

그러나 아직 나를 찾지 못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안정되지 못하고 방황한다. 너희는 진정한 평안을 알지를 못한다. 왜냐면 너희는 너희를 평안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대적자의 공격을 내적으로 항상 아주 많이 받게 되기 때문이다. 대적자는 항상 단지 너희 안에 불안과 참을성 없음과 흥분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는 너희를 자극하고 내몰아서 세상의 물결을 따르게 하여 내적인 평안을 찾을 수 없게 한다.

왜냐면 나와서 모든 접촉은 이를 막기 때문이고 내가 없이는 너희는 진정한 내적인 평안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선한 의지를 가진 자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왔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내 주변에 모았고 그들이 나를 가장 깊은 혼의 위험 가운데 구원할 구원자로서 나를 깨닫게 해주었다.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명을 믿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나를 통해 평안을 찾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창조주 하나님인 나에게 향하는 길을 찾았고 예수 안의 나를 고백하고서 내 구속사역을 첫 번째로 영접하고 의도적으로 이 길을 갔다. 그들은 첫 번째로 구속받은 자로서 육체의 죽음 후에 다시 그들의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타락한 이후에 끝 없이 긴 싸움을 견딘 그들의 혼에 진실로

평안을 주었다. 이 싸움은 대적자에 대한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다. 왜냐면 그들이 나에게 의식적으로 향했고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린 내 피를 통해 내가 그들 자신을 구속하게 허용했기 때문이다.

즉 나는 내 대적자에게 승리했다. 이제 나에게 향하려는 모든 사람은 더 이상 내 대적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는 평안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죽음 후에 저세상의 나라의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그들에게 내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평안을 얻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 그는 항상 다시 내 대적자에게 묶여 있을 것이다. 왜냐면 그가 내 구속사역 즉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든 또는 저세상에서 든 그가 나에게 향하는 길을 택하고 나에게 의해 자신이 구속되길 구하고 그를 축복되게 만들어 주는 내적인 평안을 구하며 대적자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때까지 내 대적자에 족쇄 가운데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항상 이 땅의 세상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자와 대항해 싸워야만 하는 싸움의 영역이었다. 사람들이 그에 대항해 승리하고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나를 찾을 때까지 사람들은 진정한 평안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이 평안이 너희 심장에 채워지게 될 때 비로소 축복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비록 너희가 아직 이 땅에서 살지라도 너희의 고향을 찾은 것이다. 너희는 나를 향한 올바른 길을 간 것이다. 너희는 나와 긴밀하게 연합이 되고 내 사랑의 힘을 받고 나와 함께 혼의 평안을 찾은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속하게 된 것이고 한때 너희를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자로부터 영원히 도피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깊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을 향하는 길을 올바르게 가게 된 것이다. 너희에게 영원한 고향의 문이 더 이상 닫혀 있지 않게 된다. 나 자신이 너희를 영접하고 모든 영원에서 영원까지 빛과 축복과 평안이 있는 내 나라로 너희를 인도한다.

아멘

하나님 안의 평화. 능력을 받는 일.

B.D. No. 7943

1961년 7월 16일

나와 긴밀히 연결되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세상이 너희에게 줄 수 없는 평안을 찾을 것이다. 너희가 내 임재를 허용하면, 너의 주변의 영역도 깨끗할 것이다. 왜냐면 악한 영들은 빛을 피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 빛이 너희 안에 있다. 나와 연결되는 것은 볼 수 있는 축복을 가져오는 것으로 진실로 너희 스스로 자신이 해야만 할 일이다. 너의 육체가 이를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너의 혼은 한 걸음 한 걸음 높이 성장하고 완성을 향해 성숙해 간다. 너희의 생각이 항상 나를 향하게 하는 것보다 항상 자주 너희에게 충만한 너의 사랑을 표현하는 침묵에 기도를 나에게 올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을 진실로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내 임재를 구하지 않을 것이고 나로부터 멀리하고 너의 생각은 세상을 향할 것이다.

긴밀한 생각으로 너희가 나와 연결을 되게 하면, 이로서 너희는 나를 너에게 끌어들인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나를 향하면, 이것은 영이고 생명이며 나에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내적으로 나에게 고백을 한 것이다. 너희가 전에 나를 인정하는 것을 거절했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인정한 것이다. 나로부터 멀어진 것은 너희에게 복된 것을 주지 못했다. 너희가 너희의 자유의지로 나로부터 먼 거리에서 머무는 동안에는 너희는 불행하고 불행하게 남게 된다. 이제 나에게 돌아온 것이 자유의지로 나와 깊은 연결 된 것이 너희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세상이 너희에게 줄 수 없는 평화를 찾을 것이다. 혼의 평안은 사람들에게 모든 신체적인 고통을 견디게 한다. 그는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그의 생각과 행동은 조화롭다. 왜냐하면 그는 나와 함께 평화 가운데 살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내 대적자가 아니다. 그는 나와 깊은 연결이 되어 있고 내 안에서 친구요 형제요 아버지를 보게 된다.

이로써 그는 신실하신 보호를 안다. 그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이든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의 이 땅의 삶은 이제 혼의 정화를 위한 시간이다. 그가 육신을 떠나서 아버지 집에 있는 나에게 올 시간이 다가오면, 그가 깨끗하고 흠 없이 저세상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가 항상 또 다시 나를 도피처로 삼는다면, 너희가 나를 너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진실로 너희의 혼을 정화시키는 것은 빠르게 성공할 것이다.

너희가 내 임재를 원하고 깊은 기도 가운데 진실로 나에게 가까이 오기를 구할 때 나는 진실로 나를 찾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내 자녀들과 연합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항상 단지 가능하기만 하면, 즉 침묵하는 깊은 기도로 사람들이 내가 임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그들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의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아버지인 내 곁에 생각으로 머무르려고 하는 것을 통해 너희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비록 너희가 나에게 기도제목을 올리지 않을 지라도 나는 너희 들에게 이 땅의 너희의 순례자의 길에 필요한 능력을 넘치게 부여할 것이다.

너희의 대적자들은 항상 또다시 너의 곁에 다가와서 너희가 나에게 등을 돌리게 하려고 할 것이다. 너희가 나로부터 능력을 받으면, 너희는 그를 너희로부터 물리 칠 수 있다. 그에게는 이제 권세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내 능력 앞에서 피해야만 하고 너희를 떠나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능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라. 나와 항상 또 다시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임재를 사모하라. 생각으로 항상 나와 연결되어 있어라. 너희가 내 소유가 되어 내 소유로 남길 원하면, 너희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추구하는 것에 도달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받을 것이다. 나를 항상 너희 가까이 에 있으며 너희를 인도해 너희가 이제 모든 길을 염려 없이 갈 수 있다. 너희가 너의 생각과 의지로 내가 너희 옆에서 함께 갈 수 있게 허용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선한 보호하심 아래 있다 너희는 확실하게 목표에 도달한다. 나와 연결은 항상 더욱 깊게 될 것이며 이로서 너희는 나와 함께 용해되어 하나가 될 것이고 영원까지 하나로 남을 것이다.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로운 자에 대한 공격.

B.D. No. 5949

1954년 5월 5일

어두움의 세력이 의로운 사람을 특별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의 운명은 자주 견딜 수 없게 된다. 왜냐면 어두움의 세력이 의로운 사람을 절대로 자신에게 속하게 되지 않을 대적자로 깨닫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빼앗아 그가 기댈 곳을 없게 만들어, 저항하지 않고 그들에게 항복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두움의 세력과 이 세력들의 주인의 미움을 받는다. 어두움의 세력은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미움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그들이 가장 큰 사랑이 없는 행동을 하게 하면서 이런 미움을 발산시키고 하나님은 너희 성장을 위해 이를 허용한다.

너희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의로운 사람에게 행해지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게 될 것이다. 때가 종말의 때이고 지옥의 세력들이 풀려나고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분노한다. 이런 세력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데 방해받지 않지만 그러나 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형상을 입은 이러한 악마들이 받는 벌은 진실로 공의로운 보상이다. 왜냐면 그들이 포로가 되기 때문이다. 자유롭게 방해받지 않고 행할 수 있었던 그들이 묶임을 받고 끝없이 기간 동안 그들의 자유를 잃게 될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의 운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죽음이 그를 구원하기까지 단지 짧은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혼이 이를 통해 얻는 유익은 너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너희가 왜 하나님이 악이 선을 능가하도록 허용하는지 이해하게 해줄 수 없다. 왜냐면 고난은 단지 육체에게만 고통을 주고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혼에 대해 어떤 권세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저하게 멀게 될 하나님께 향하는 길을 이 일이 짧게 만들어 주는 유익을 준다. 특별하게 힘든 이 땅의 운명에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잘 판단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이 계획을 만들었고 모든 불의와 모든 죄가 고려되었고 모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는 가운데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한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일은 비록 사람의 이성이 다른 판단을 하기 원할지라도 선택하고 그의 혼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상급과 성공은 측량할 수 없다. 가장 힘든 고난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을 찾은 모든 혼은 혼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게 되고 혼은 그의 육체가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게 만든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아멘

나 자신을 세상 앞에 고백하는 일에서 단지 나를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은 확고하게 머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내적으로 나와 나의 가르침을 굳게 확신하는 사람들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확고하게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진리를, 나를 증거해주는 영적인 사상을 단지 표면적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은 단지 그들이 종교적인 관점을 이야기할 때 쉽게 사용하는 말하는 방식이었고, 그러나 그들이 진지하게 종교적인 관점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면, 그들은 실패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어떠한 깨달음도 없고, 그들의 믿음은 단지 형식적인 믿음이고, 이 땅의 삶이 선하게 보일지라도, 단지 헛된 삶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불씨를 아직 깨어나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불씨는 그냥 놓여 있고, 그러므로 그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무지와 영적인 눈이 먼 것 상태를 의미한다. 즉 능력이 요구되는 곳에서 무능력한 상태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영적인 위험 속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공개적으로 나와 나의 가르침을 고백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그들이 나와 나의 가르침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항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단지 내 뜻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내 뜻을 성취시킬 수 있는지 깨달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이런 확신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뜻을 성취시키는 일이 믿음에 달려 있고, 굳게 대변할 수 있고 대변하게 될 사람의 내적인 확신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즉 내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진리를 깨달은 상태로 살고, 그의 믿음은 생명력이 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런 믿음을 세상 앞에 고백하고, 그에게서 이런 믿음을 빼앗을 수 없다. 이런 믿음은 깊게 자리를 잡고 있고,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위협을 견딘다.

현재 자신을 믿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그러나 믿음의 시험을 견딜 수 없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 진지하게 그들이 믿는 것처럼 나타내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수고를 하지 않고, 모든 종교적인 말을 피해간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알지 못함을 인정하기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모든 것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버릴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다. 왜냐하면 이성으로는 이를 파악할 수 없고, 유일하게 이해할 수 없게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의 역사에 심장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분명하게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표현하도록 결정을 재촉 받기까지, 그들이 믿음의 결정을 하도록 강요를 받기까지 자신의 이웃에게 자신을 믿는 사람처럼 나타낼 것이다. 믿음의 결정을 하도록 재촉받고 강요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들이 행하는 일이 올바른 일인지 생각하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것을 버린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해보고,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하면 헤아려 보기 위해 영의 역사가 필요한 것을 이성을 통해 헤아려 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나와 나의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용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단지 올바른 사랑의 삶의 결과로 그들 안에 역사하게 된 영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고백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의 믿음은 사랑을 통해 생명력이 있게 되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모든 공격에 대항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나에게 신실하게 남을 것이다. 왜냐면 세상에서 나를 고백하는 사람은 나로부터 항상 능력을 받기 때문이다. 그는 그가 믿은 대로 축복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멘

마지막 싸움. 세상 앞에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

B.D. No. 4433

1948년 9월 15일

종 말 전의 마지막 때에 모든 영적인 존재들에게 싸움이 예고될 것이다. 이를 통해 너희는 **오** 세상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깨달을 것이다. 시간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권세의 가혹한 조치를 통해 일어날 소동을 각오해야 될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의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와 믿음에 대해 질문하고, 위협하며,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관찰하고, 너희 대화를 엿듣기를 주저하지 않고, 너희가 말하고, 행한 것에 대해 책임지도록 너희를 재판에 회부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공개적으로 고백해야만 하고,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게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두려움 없이 말해야만 하는 때가 온 것이다. 나는 이러한 세상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일을 너희가 나에게 속했다는 증거로 요구하고, 나 자신이 실제 너희가 너희 심장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 지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염소와 양을 구별해야 하는 마지막 싸움이고, 이 마지막 싸움은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대적자의 죄가 세상 앞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 이로써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의 자세를 통해,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의 대적자를 통해 결정하게 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 싸움의 기간은 단지 짧은 기간이 될 것이다. 이 싸움은 모든 곳에서, 단지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다. 항상 사랑 없음이 사랑에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물질 세계가 영적 세계를 놀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도달한 모든 곳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사람이 믿도록 요구하는 것의 원칙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인 곳에서, 두 가지 무리가 형성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떠나는 일이 세상 모든 곳에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르침이 전파되는 곳에서 믿음의 싸움이 아주 격렬하게 이뤄질 것이고, 이런 일이 바로 종말이 될 것이다.

너희 사람들은 다가오는 일의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믿을 만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나의 영을 통해 너희에게 예고한대로, 이런 일이 다가올 것이다. 너희가 종말의 날과 시간을 알면, 이 날이 아주 가까이에 있어, 너희는 놀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너희의 나를 향한 신실함이 나의 모든 보호와 견딜 수 있게 하는 모든 능력의 공급을 너희에게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이 일에 대한 지식이 너희에게 확신을 주고, 믿음을 강하게 하여, 너희가 이 때를 견딜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게다가 너희가 축복될 수 있도록, 내가 이 날을 줄일 것이다.

아멘

나에게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영으로 진리로 경배를 드리라. 심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 유일하게 나를 기쁘게 하고 또한 내 귀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나는 단지 인간의 심장을 보고 심장이 함께 하지 않는 말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나와 긴밀하게 단둘의 대화를 하기 위해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다면 너희가 나와 연결을 이루려는 의지를 통해 말 없이 나를 찬양하는 것이고 너희 생각을 나에게 향하게 하는 침묵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이고 너희 혼에게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한다. 왜냐면 나와 연결을 이루는 일이 너희가 힘과 은혜를 소유하게 해주고 혼이 힘과 은혜를 성장을 위한 도움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긴밀한 기도 방식은 내가 기뻐하는 올바른 기도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이고 너희가 나와 아주 가까워 내 사랑의 힘이 너희에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힘이 너희를 항상 나에게 더 긴밀하게 이끈다. 너희가 나와 대화하기 원하면 입술로 하는 말은 진실로 필요하지 않다. 왜냐면 입술로 하는 말은 쉽게 어떤 것을 숨기거나 가장하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를 알지만 이웃이 이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웃이 쉽게 속고 이제 이웃도 같은 기도 형식을 사용하게 된다. 기도하기 원하면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라. 가장 깊은 침묵에 들어가라. 그 곳에서 너희는 나를 훨씬 더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마치 자녀가 그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처럼 나와 대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주저하지 않고 어린 아이와 같은 신뢰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요청은 응답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기도가 이제 내 귀에 도달하기 때문이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내 말씀으로 너희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오는 사람에게 나는 또한 내 약속을 지키고 그가 더 많이 신뢰하는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고 침묵하는 가운데 신뢰하면서 나와 단둘의 대화를 하는 가운데 더 긴밀하게 나에게 속하게 될수록 이 약속이 더 분명하게 성취가 된다.

입술의 언어가 서로 의사 소통하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다. 왜냐면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너희 심장을 들여다보고 너희의 생각을 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장 아름다운 말로도 나를 속일 수 없고 너희가 나를 찬양하고 칭송하기를 원하면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의탁하고 의지하기 원하면 말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고요한 감사와 겸손한 부름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과 사랑을 통해 생명력이 있게 된 믿음이 나를 진실로 기쁘게 하고 찬양과 칭송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이웃에게 너희의 입술로 나를 고백해야 한다. 믿음에 대한 너희의 자세에 관한 일이면 너희는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나를 고백해야 하고 너희의 고백하는 용기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면 이런 고백은 아직 믿음이 약한 이웃에게 다시 동기가 돼야 하기 때문이고 이런 고백이 동시에 너희가 진리를 옹호하고 너희의 내면의 생각과 너희의 확신과 일치하지 않는 인상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고백을 하도록 요구받을 때 너희는 항상 진실되야 하고 나와 내 이름을 모든 것 위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나 자신에게 해야 할 말을 너희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나에게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심장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심장이 함께 하지 않는 단지 입으로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특정한 안건에 대해 심장과 하나가 되어 나에게 드리는 모두가 그들의 심장의 깊은 곳에서 같은 것을 요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이런 기도가 비록 단지 짧을지라도 이런 기도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영으로 진리로 나에게 기도하면 나는 기도를 듣고 성취시켜 줄 것이다.

아멘

세상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사람은.

B.D. No. 7216

1958년 11월 28일

세상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일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아직 내 영으로 충만해 있지 않다. 그는 단지 빈 그릇이고 영이 없고 생명이 없는 죽은 형체이다. 왜냐하면 생명은 나를 깨닫고 나를 이웃에게 고백하기 때문이다. 두려워하며 내 이름을 말하기를 피하는 것을 통해 나와 내 구속사역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을 통해 단지 희귀하게 영적인 대화를 허용하고 허용하면, 단지 불쾌한 가운데 허용하는 것을 통해 너희는 그들이 형식적인 신자인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죽은 추종자로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곳에서는 가장 큰 기쁨으로 내 이름을 고백할 것이고 사람들이 내면으로부터 세상 앞에 나를 고백하게 재촉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제 얼마나 적게 사람들이 기독교적으로 처신을 하는 지에 그들이 종교나 또는 기독교를 즉 교회나 또는 다른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는 일을 피하려고 하는 지에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나 모든 것이 비밀로 포장되어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나 사람들이 사회에서 하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영의 나라에 관한 또는 사람의 이 땅의 과제에 관한 주제를 피하는 지에 주의를 기울이면, 너희는 언젠가 사람들에게 세상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한 분을 고백하거나 또는 거부하기를 요구하면,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될지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단지 소수만이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나와 내 나라를 위해 세상 앞에서 나설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심장 안에서 아직 전적으로 버리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올바른 고백이 주는 결과를 자신이 짚기 위한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설 것이다. 종말 전의 내 대적자의 역사인 환란을 견디는 사람은 단지 소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 누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는지 증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이런 사람이 세상 앞에 큰 소리로 내 이름을 고백하기 때문이다. 단지 이런 사람이 나를 부인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단지 생명력이 있는 믿음 만이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을 준다.

단지 생명력이 있는 믿음 만이 사람 안에 내 영의 역사를 보장한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에 내 도움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갖게 한다. 이 때는 누가 나에게 속하였는지 나에게 속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기독교가 지금까지 단지 형식이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들이 구분되는 때이다.

그러면 사람이 이런 또는 저러한 교파를 추종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 자신을 따라야만 한다. 그가 나와 생명력있게 연합이 되어 큰소리로 그의 하나님이요 구세주로서 내 이름을 선포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돼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내 영접을 받을 것이다.

나는 빛의 나라에서 그를 고백할 것이다. 나는 "세상 앞에 나를 고백하는 사람을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고백할 것이다." 라는 내 약속을 성취시킬 것이다. 왜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깨달았고 내 영이 그 안에 모든 충만함으로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아직 내 대적자에게 속해 있고 다시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내 대적자에게 속한 상태로 머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내 이름을 인정하는 것을 요구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의 날에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러면 나는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올 것이다.

생명은 단지 나로부터 오고 나에게 속한 사람은 생명을 얻고 그러나 마지막 결정을 그에게 요구할 때에 그가 나를 부인하면서 나를 떠나는 모든 사람은 죽음에 도달한다 는 이 말씀을 이해하라. 이런 사람들의 숫자는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축복으로 인도하는 내 무리는 단지 작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인정하는 일. 마지막 믿음의 결정.

B.D. No. 8866

1964년 10월 11일

너희가 육신에 죽음 후에 너희에게 빛이 충만한 나라의 문이 열릴 것인가는 너희의 자유로운 의지의 결정에 달려 있다. 너희가 나와 연결을 아주 긴밀하게 만들어서 너희가 이제 내 안의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희가 나를 죄와 죽음의 구원자로 깨닫고 너희 자신을 나에게 전체적으로 헌신하는가에 그리고 나 자신과 예수를 더 이상 분리할 수 없게 되었는지에 너희 모두가 너의 죄를 십자가 아래 나에게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죄에 대한 용서를 나에게 구했는가에 달려있다.

빛으로 채워진 나라에서 너희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 나는 진실로 너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써 이 땅에 내려오셔서 너희가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나 자신의 곁형체가 된 예수를 인정하기를 원한다. 나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지라도 너희에게는 하늘 나라에 가는 것이 아주 어렵다. 왜냐면 너희는 교만과 자기 사랑과 모든 부족한 덕성에 대항해 싸워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너희가 내 대적자가 너희에게 전해주어서 너희가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해서 너희를 깊고도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한 것 들이고 너희가 아직 그에게 속했다는 증거이다. 너희가 인간으로 이 땅에 임할 때 이런 부덕한 것의 대부분이 너희 안에 남아 있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쉽게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왜냐면 너희를 위해 너의 의지를

강하게 하는 것을 구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덕성이 부족한 것으로부터 너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너희의 의지를 누구에게 드리느냐 이다. 이것 만이 너희의 영원한 운명을 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 관한 지식이 단지 아주 연약하여 구속사역을 믿는 사람은 단지 적다. 그리고 자신을 나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십자가를 통해 얻은 은혜를 활용하고 모든 죄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려는 자는 적다.

이 들은 확실하게 구속을 받게 되고 빛나는 가운데 내 나라의 문을 통과해 들어 갈 것이다. 나는 항상 또 다시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그들이 알아야만 할 가장 중요한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관해 설명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닫아 버린다. 그들과는 영적인 말을 한마디도 서로 나눌 수 없다. 이것은 내 대적자의 역사이다. 그는 종말의 때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그들에게 그들이 믿지 못하게 모든 것을 신화로 여기게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또 다시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인 나와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너희 안에서 스스로 빛을 찾기를 단지 권면할 수 있다. 이 빛은 너희가 단지 진지하게 진리를 깊이 탐구하려는 소원이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서 불지펴 줄 빛이다. 그러면 너희는 예수와 그의 구속사역에 관해 빛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믿음이 없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이 빛을 유지하려고 하라.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에게 나를 위할 것인지 또는 나를 대적할 것인지 결정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미 이에 관해 많은 지식을 가졌어야만 함을 너희가 더 이상 역풍을 두려워할 필요 없음을 너희가 전적인 확신 가운데 그와 그의 구속사역을 위해 옹호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간은 자신들의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을 버리게 하기 위해 단지 작은 자극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해야 할 시간이다.

이것이 바로 종말 전에 마지막 믿음의 결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게 될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고 새로운 파문에 가게 될지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무엇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항상 알려주고 나와 깊은 연결을 이루게 아직 나를 전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나로부터 전적으로 멀어지지 않은 비록 그들에게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한다.

이런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구속사역을 그들의 눈앞에 볼 수 있게 인도해 주는 것이 내가 그들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불지펴줄 올바른 빛을 갖게 자원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내가 진지하게 추구하는 것이다.

아멘

영의 나라의 축복.

B.D. No. 4578

1949년 3월 2일

우체의 걸형제를 벗고, 영원한 고향인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존재들의 축복을 너희는 측량할 수 없다. 그들은 이 땅의 모든 짐을 벗고, 어떤 무거운 것도 그들을 짓누르

지 않고, 어떤 원수의 공격도 받지 않고, 두려움과 슬픔은 그들에게서 사라진다. 그들은 아름답고, 아주 사랑스럽게 보이는 영광스러운 나의 창조자의 의지의 작품을 보고, 빛이 충만한 분이 그들을 평안과 축복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 간다. 그들은 이런 환경 속에 거할 수 있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할 수 있다. 그들의 혼이 아직 묶여 있고, 세상의 물질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거친 후의 자유가 그들의 축복이 될 것이다.

그들의 심장은 사랑을 행할 능력이 있고, 사랑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사랑에 의해 뜨겁게 타오르고, 그러므로 그들은 이런 일만으로도 이미 축복 가운데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성취되는 일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과 전적으로 같은 성장 단계에 있는 혼들과 연합하고, 그러므로 이런 연합이 축복을 높인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이룬 연합이 각각의 존재들의 능력을 높여주고, 이제 일하려는 갈망과 함께 사랑으로 역사하는 일이 결과로 나타나고, 이런 일이 엄청나게 행복하게 해주고, 항상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게 하는 능력의 확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능력을 공급받는 일은 가장 큰 기쁨을 느끼게 한다. 왜냐하면 능력의 공급은 하나님 가까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나의 피조물들은 나를 느끼고, 나에게 도달한다. 나는 그들의 성장 정도에 따라 빛으로 채워주는 일을 가능하게 하고, 그들이 견딜 수 있는 방식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한다. 그들의 내적 축복은 증가하게 된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갈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항상 이 갈망이 성취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땅의 어느 사람도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 사랑은 단지 영적인 사랑의 반사이고, 이 땅에서 이미 가장 갈망할 만한 것이지만, 그러나 영의 나라에서 혼에게 제공되는 모든 영광은 훨씬 능가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영광은 지속적으로 빛과 능력을 공급받는 일을 의미하고, 이로써 지속적으로 하나님 가까이 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의 피조물이 빛의 나라에 들어가면, 내가 그들의 축복의 본질이다. 그들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모두가 이 땅에서 나를 향한 자신의 사랑에 대한 상급을 받을 것이고, 나는 항상 축복을 높여준다. 나는 혼에게 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재워주고, 항상 새로운 기쁨을 준다. 왜냐하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 2장 9 절)와 같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의 삶의 상급은 저 세상에서 축복된 삶.

B.D. No. 4890

1950년 5월 5일

이 땅에서 내 뜻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축복된 운명이 주어진다. 나는 단지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기 원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의 올바른 자녀가 행하는 것처럼 서로를 섬기기를 원한다. 나는 다른 계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올바른 사랑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사랑으로부터 나와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는 모든 것이 나온다. 그러므로 올바른 사랑이 너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유일한 것이다.

너희의 성품은 사랑으로 변화되어야만 하고, 너희의 성품이 나로부터,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왔을 때의 존재처럼 다시 되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원래의 고향인 영의 나라의 나의 가까이에서, 너희에게 영원한 축복을 의미하는 나의 능력으로 충만한 가운데 다시 거할 수 있게 된다. 너희가 내 뜻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축복된 운명이 너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뜻을 영접하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라. 그러면 내 뜻이 너희의 뜻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모든 일은 너희가 내 뜻대로 사는 일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선하게 될 수밖에 없다. 선한 심장을 가진 사람은 내 뜻을 따르고, 그가 자신의 아버지의 올바른 자녀라는 증거이다.

나는 나의 자녀들을 모든 사랑과 모든 염려로 돌본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을 나의 자녀로 느끼고 사람을 나의 자녀라고 칭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을 통해 나와 긴밀한 연결을 이루면, 그들은 염려없이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다. 서로 간에 선하게 대하고, 모든 위험 가운데 도움을 주라. 너희 모두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고, 단지 가능한 곳에서 도움을 주라. 너희 자신이 나의 자녀임을 증명하라.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에게 영원한 상급을 줄 것이다.

아멘

하늘의 축복과 행복.

B.D. No. 2233

1942년 2월 12일

사람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모든 비유는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런 축복을 비슷하게라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하는 시도를 하면, 어떤 것도 천국과 같게 만들 수 없을 것이다. 혼을 영원히 끝없이 행복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고, 주님의 약속으로 만족해야 만한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 2:9)"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아는 일은 혼의 성장을 위해 가장 크게 불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온전하게 되야 하고, 그러므로 그는 상급 때문이 아니라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 동인이 되어 선하게 되야만 하기 때문이다. 온전한 존재가 영원 가운데 받게 되는 것은 비교할 수 없게 축복된 일이다. 사람이 이 축복의 정도를 알면, 무엇에 축복이 있는지 알면, 사람은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고난을 감수할 것이다.

그에게 단지 사랑의 감정이 저 세상에서 결정적이라는 정도로 설명해줄 수 있고, 사랑의 감정이 없이는 축복을 생각할 수도 없음을, 사랑이 모든 것을 연결시키고, 이를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행복한 상태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설명해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랑은 저 세상의 빛의 존재들의 사랑의 정도에 견주어 볼 때,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땅에서 사랑을 어떠한 귀한 것으로 느끼고, 다시 말해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느끼는 것을 어떠한 귀한 것으로 느끼고, 사람이 이 사랑을 한번 체험하면, 이 사랑을 갈망할지라도, 사람들 스스로 사랑이 축복의 본질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축

복되게 하는 것은 단지 베푸는, 이로써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갈망의 대상이 단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일 경우에만 갈망하는 사랑은 축복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갈망하는 사랑이 동시에 충족되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행복하게 하면, 영원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끝없는 사랑으로 존재에게 가까이 다가와, 존재의 뜨거운 갈망을 충족시켜주는 존재는 얼마나 더 행복할 것인가! 이런 갈망이 성취된 기쁨은 표현할 수 없고, 말로써 다시 묘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존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비추임을 영접하면, 이 과정은 전적으로 영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영원한 축복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영의 나라를 개관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영의 성장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뜻대로, 영원한 영광을 알려주는 지식을 그에게 감춰두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는 은혜로 축복을 받아야 한다.

B.D. No. 8527

1963년 6월 13일

너희가 긴밀하게 나와 연합이 되었으면 나는 너희에게 제한이 없이 내 은혜를 부어 줄 것이다. 너희는 이 은혜를 단지 감사하며 받아야 한다. 너희 스스로 나에게 속하려고 하면, 너희가 나에게 기도를 통해 사랑을 행함을 통해 나와 긴밀하게 연결되면, 너희는 내 사랑의 선물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성장하게 너희를 돕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것은 너희가 내 사랑을 한때 거절해 더 이상 권리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벌어드리지 않은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이다.

그러나 내 사랑은 아주 크다. 내 사랑은 자신을 선물한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 너희를 뒤따르고 너희에게 진실로 중요한 은혜의 선물을 준다. 왜냐하면 이 선물은 너희가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인생의 여정은 나에게 의해 모든 일어나는 일이 너희에게 최선이 될 수 있게 인도받는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너희가 만나는 모든 것이 은혜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의 위로 성장하는 것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모든 은혜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너희에게 맡겨져 있다. 왜냐하면 내 편에서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선물을 한다. 그러나 나는 내 선물을 영접하게 너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너희의 자유의지가 이를 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내 도움이 없이 너희는 전적으로 이 땅에서 성장할 능력이 없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 스스로 나와 연결을 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제공해준 은혜의 선물을 확실하게 활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와 연결이 나에게 너희의 나를 향한 의지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의지가 내 의지에 복종할 것이다. 이로써 그는 그가 만나는 모든 것에서 내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은혜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인간으로서 사는 이 땅의 전 삶은 은혜이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완성에 도달한 영적인 존재로써 그가 한때 자유의지로 떠나갔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최종적인 기회를 그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온

전하게 되는 것을 돕기 위해 내 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일어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내 사랑이 내 피조물들에게 주는 그들이 한때 자유의지로 나를 떠났기 때문에 어떤 존재도 요구할 수 없는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서 내 자녀에게 느끼는 내 큰 사랑을 증명해주는 은혜이다. 사람들의 큰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함을 나는 해결할 것이고 그들 스스로 나에게 귀환을 이룰 수 있게 충분한 은혜와 능력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해야 하는 그들의 의지를 나는 강하게 해줄 것이다. 나는 혼이 나에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실행하지 않고 놔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단지 너희의 의지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거나 너희를 강제로 높은 곳으로 끌어 올릴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 스스로 내 은혜의 제공에 제한을 가한다. 왜냐면 너희가 이 은혜를 자유의지로 활용하지 않으면 비록 내 사랑이 아주 깊을지라도 내가 나를 위해 너희를 얻기를 원할지라도 이 은혜는 성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유로운 것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의 자유의지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낮은 상태가 된 이유이다. 그들은 내 은혜의 선물을 활용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자신들의 성장 과정에서 한 발짝도 성장을 이루지 못했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들의 책임을 소개해줄 수 있는 마지막 믿음의 싸움에서 결정을 하게 기회를 줄 수 없다.

왜냐면 그들이 한때 인정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불행하게 된 자신들의 창조주 하나님인 나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지는 그들 자신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이제 그에게 다시 은혜가 측량할 수 없게 주어지는 일은 그가 진실로 나와 최종적으로 하나가 되는 목표에 그를 다시 내 자녀로 만드는 목표에 그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원래의 존재가 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올바른 의지의 결정만이 필요하다. 나는 모든 방식으로 아직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의 의지가 변화될 수 있게 시도한다. 나는 모든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전한다. 그는 이제 나에게 자신의 모든 의지를 드러기 위해 단지 이 사랑으로부터 감동을 느끼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자유의지로 일어나야만 한다. 이를 위해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울려 퍼지는 내 말이 도움을 줄 것이다. 내 말은 사람들이 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게 자극해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진실로 이제 자유의지로 나에게 향할 것이다. 왜냐면 그는 모든 사랑을 행함을 통해 나와 연결을 이루고 내가 이제 그를 붙잡고 영원히 더 이상 놓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온 내 말은 너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효과가 있는 은혜의 선물이다. 만약에 너희가 내 음성을 들을 때 너희 심장을 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너희의 의지를 선물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모든 길에 동행할 것이다. 너희는 항상 자주 나와야 연결을 시킬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너희의 생각에서 떠나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은혜를 올바르게 활용한다. 너희는 너희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할 것이다. 왜냐면 내 은혜가 주어지는 일이 너희가 사랑을 행하는데 항상 필요한 능력이 주어지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진실로 은혜로 축복을 받는다. 너희는 내 자녀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